

너무 어둠이 짙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악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음이니라 하였더라

교회여! 다가오는 세대 붙잡아라!

Churchleaders.com, 몰링대학 선교학과장 마이크 프로스트의 'Z세대의 세계관' 소개

20세기 초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종교가 없는 현대화는 세속 사회에서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싱거운 세속주의 속에서 매혹을 찾으려는 시도로 사람들이 일종의 다신론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신념과 관행을 함께 혼합해 영성을 혼성시키는 시기인 '후기 근대주의'의 출현을 예측했다.

호주 몰링대학 선교학과장 마이크 프로스트(Mike Frost)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의 "Z세대의 세계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베버의 말은 맞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Z세대(Generation Z)는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한다. 보통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digital native) 현실주의와 윤리를 중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회 평론가들은 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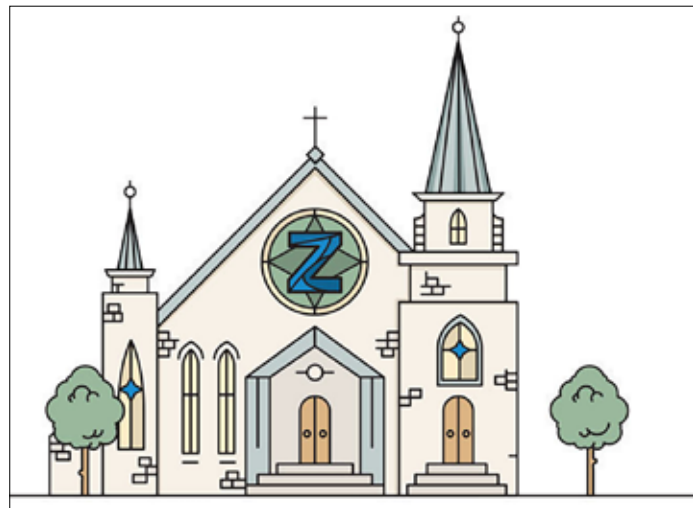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러한 경향이 '우리가 지금껏 십대들에게 종교에 대해 어떻게 질문해 왔는지'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으로 자신을 밝혀달라는 전통적인 설문조사와 마주치면, 청소년들은 도무지 도리가 없다. 그리고 디킨 팀은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이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신, 연구원들은 현대의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론을 사용했고, 10대들에게 6가지 다른 "영적 유형" 즉 '세속적인(This worldly)', '무관심한(Indifferent)',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성을 추구하는(spiritual not religious)', '구도자(Seekers)', '명목상으로는 종교적인(Nominally religious)', '종교적으로 헌신적인(Religiously committed)' 등을 사용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he Religious Life of Gen Z).

이 연구는 젊은이들이 무관심은커녕 "양면성과는 거리가 먼, 복잡하고 비판적이며, 관심 깊은 방식으로 세계관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혼합성(hybridity)과 질문들(questioning)을 통해 그것이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혼합성(hybridity)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국제 모델인 '미란다 커(Miranda Kerr)'가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설명하는 인용문을 읽어보라.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난 크리스천이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한다. 난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큰일이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명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루에 최소 3분의 기도와 최소 5분의 명상을 두 번 하는 것은 마치 화살을 쏠 때 과녁을 조준하도록 신호음을 잡는 것이다. 나



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자연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그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께 기도한다. "이 날과 나의 가족과 나의 건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를 밝혀주세요, 제 심장 '차크라'(Chakra, 인간 정신의 중심부)를 말한다.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기능이 합쳐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좀 열어주세요. 제 공간을 열고 의식을 고양시켜 최고의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한다."

디킨 대학교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 'Z세대의 세계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매혹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십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청소년의 85%가 기독교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

다. △80%가 불교도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75%가 힌두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74%가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83%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십대들은 후주의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이었다. 다른 종교도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91%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후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다. △90%는 학생들이 학교에 종교적 복장이나 보석을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88%는 후주의 모든 종교단체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교가 그들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의견이 갈렸다.

<3면으로 계속>



온라인 통한 자기반성 시간 만든다!

리더십저널, 케빈 리처드슨 목사의 온라인 사순절 영적성장 실천방안 제시

사순절은 자기반성의 시간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깊게 할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과 함께 영성 성장 전문가 케빈 리처드슨(Gavin Richardson)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사순절 동안 교회가 교인들과 잠재적으로 교회에 참석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순절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소개해준다(Online engagement details for Lent).

1. 오늘의 사진 묵상

이 온라인 묵상방법은 사람들에게 사순절 기간 매일 특정한 단어나 주제에 집중하도록 해서 참가자들에게 사순절 관련주제에 대해 성찰하고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사진을 공유하게 한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계획하고 있는 설교시리즈의 성경 본문의 단어나 주제를 선택해 나만의 오늘의 사진 묵상 챌린지를 시작하라.

소셜 미디어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매일의 사순절 단어로 그래픽을 만든다. Rethink Church-오늘의 사진 챌린지처럼 여러분이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예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교인들이 제출한 이미지를 모아서 예배 중에 설교 이미지, 슬라이드 쇼 또는 목

상사진집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2. 온라인 모임

사순절 기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기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완벽한 기회가 된다. 스카이프나 줌을 사용해 온라인 성경공부 모임을 열어 참가자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매우 전통적인 의미의 온라인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

3. 온라인 금식

교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또는 특별히 지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를 하지 않도록 초대한다.

<4면으로 계속>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김명욱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종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실교 동영상이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서류 제출처 및 마감일

- 제출 마감일: 2021년 4월 30일까지
- 모든 서류는 info@mybcpc.org에서 e-mail로만 접수합니다.
- 추천서는 아래 교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다가오는 세대 붙잡아라!

(1면에서 계속)
 △44%는 종교가 해결한 것보다 사회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했다. △50%는 매우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33%는 종교가 의회나 공식 행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32%는 지역사회가 이슬람 사원이나 사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에 사원을 건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호주에서의 종교적 신념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연구원들이 결론 내렸듯이 종교에 관한 한 세대들은 복잡하고 비판적이며 관심을 갖는다.

Z세대는 복잡적이다

호주 세대들의 종교적 견해는 복잡하다.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기는커녕, 세대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거나 전통적인 종교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종의 맞춤형 종교생활을 혼합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 그들은 기성 세대의 구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믿거나 속하지 않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종교적인 전통이나 단체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대다수 청소년(58%)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회에서의 이러한 표현현상이 청소년들이 무신론자 세대가 되거나 영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확실히, 신에 대한 믿음은 젊은 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쇠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높은 존재나 생명의 힘을 믿거나 혹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종교적 전통에서 도출된 특정한 영적 사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정도(50%)가 '업보사상'을 믿고, 약 3분의 1(29%)의 청소년들이 '윤회사상'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세대들은 불교도나 힌두교도도 인식되지 않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세대들 사이의 영적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라고 이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앤드류 싱글튼(Andrew Singleton)이 말했다.

그는 "카르마에 대한 생각은 이 삶에서 무엇이 되고 도는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반신비적인 속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부 호주 청소년들은 유령(31%)을 믿고, 죽은 사람들과 소통하고(25%), 점성술(20%)과 UFO(20%)를 믿는 등 다른 영적 사상에 개방적이다.

이는 배우 사라 '미셸 겔라(Sarah Michelle Gellar)'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에 대한 생각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상이지만 말이죠. 나는 대부분의 종교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교파를 가봤고, 카톨릭, 기독교, 유대인, 불교 등 모든 것을 조금씩 떼어내어 맞춤 제작했습니다."

싱글튼은 "세대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가능성으로 문을 완전히 닫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된 방식에 충성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Z세대는 비판적이다

세대들은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 중 약 절반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타자를 너무 편협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교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모스크 사원'의 건설에 반대하며, 편협한 종교적 신념을 격정하고, 종교가 의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연구진은 또 호주 '결혼평등 우편투표' 때 설문조사를 마쳤다는 점에서 전통 종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욕은 다소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문제를 둘러싼 원한은 그들의 대답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들은 성직자의 아동 성폭행 스캔들, 도난당한 세대 정책, 911사태와 같은 사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교회의 개입을 알고 있다. 그들이 명상, 요가, 업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종교적 근본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

한 일이다.

Z세대는 관심을 갖는다

사회평론가들은 세속주의, 소비주의, 자본주의가 사회를 잔혹하게 만든 결과가 종교적 관심의 재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경쟁과 아마도 전쟁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알카에다'와 'IS'의 부상, 그리고 '신나치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의 재등장을 보더라도, 그들의 추측이 어느 정도는 맞다.

하지만 Z세대는 유행을 거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우려는 편협함과 공격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그들이 얼마나 평화로운 공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대들은 분명 기독교인, 불교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단지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뿐이다.

다른 연구들은 세대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체계적 인종차별에 도전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타자 존중하기를 원한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서구문화의 세속주의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Z세대의 세계관'(Worldview of Generation Z)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처럼 매우 다른 도전을 드러낸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한때 상상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거부로 탄생한 이교도 사회인데, 문화간 선교가 익숙했던 기독교 이전의 이교도보다 복음에 훨씬 더 저항적이다. 확실히 이곳은 우리 시대의 가장 도전적인 선교지다."

결국 Z세대의 신앙생활은 변증학과 복음주의에 대한 교회의 기존 방식에 완전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서머타임 시작

3월 14일(주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종전 오전 1시가 2시로 1시간 당겨짐으로 이날 주일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시론

OF, FOR, WITH, BY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한 사람이 아침마다 반려견인 개를 데리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날마다 개하고 달렸습니다. 사람은 그를 향해 "저 사람은 개하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도 개한테 지니까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댔습니다. "저 사람은 개보다도 못 달린다, 개만도 못하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달려서 드디어 개하고 비슷하게 같이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개만큼은 달리는구나, 개 같구먼" 몇 년 후에 노력해서 개를 이겼더니 사람은 비로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개도 이기네. 개보다 낫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겨우 '개보다 낫다'였다고 합니다(피곤글).

그 사람이 무엇과 경주하고 살고 있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가 보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은 '인생은 네 개의 전치사(of, for, with, by)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누구에 '의한'(of) 삶이나, '삶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위해'(for) 살 것인가,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는 누구와 '함께'(with) 하느냐,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에 '의해'(by) 사느냐,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네 개의 전치사 'of, for, with, by'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동안 이 4가지 전치사 'of, for, with, by'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2021년에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주로 돈과 경주를 합니다. 돈과 경주하는 사람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종점 없는 열차를 따라 달려갈 뿐인 '돈 사람'들입니다. 결국 '허무'만이 남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권력의 탑에서 추락해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인은 사람과 경주를 합니다. 사람과 경주하면 질투와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점점 자신이 고립되어 고독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사람은 경주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입니다. 참 사람은 모름지기 '나눔, 평화, 상생, 생명' 등과 같은 참된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길고 긴 유배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정밀하게 숙고하면서 그 결과를 큰 아들 학연에게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온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의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둘째는 '이로움과 해로움의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1번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이익을 얻는 삶, 2번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삶, 3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는 삶,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손해를 당하는 삶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은 2번째 등급인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삶이다."

의미있게 가슴에 담아둡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가치기준이 다른 세상에서 부대끼며 핍박을 받아 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5:10),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삶,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어안고 몸부림치며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for), 같은 가치, 같은 마음, 같은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모인 교회에서(with),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배려하며 격려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by),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그리고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of)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여기저기 깊은 신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는 나의 소리, 당신의 소리, 우리들의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서서 살아가자니 우리들의 삶의 가치인 신앙에도 많은 회의와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에게 스스로 더욱더 'of, for, with, by'를 물어보며 하나님만을 선포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 우리들의 인생 안에 나타나고 이뤄지는 성취의 복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지만 그래도 올 한해가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그려보는 시간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이자 대담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pastor.eun@gmail.com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당신은 이웃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 글은 본인이 묵화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를 모든 미주의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하여 그대로 기고한 것입니다.

얼마 전 다음과 같은 글을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18살 먹은 여학생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요일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여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저는 교회에 출석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반역함과 불복종 때문에 저들은 모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니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근래에 잇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신이 세상의 구주로 부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설교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도록 강요했지만 저는 당신이 당신의 메시지를 정말 믿는 것

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교회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아무개가...”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민교회를 묵화하면서 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직 한인들에게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해 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한인이 모이는 교회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은 미국 문화 이기에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단지 친절을 베풀어 우리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이 아닌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대상자

로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근처에 사는 자들이 시가(cigar)를 피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 같으면 냄새 난다고 불평하며 경계는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엔 코로나 펜데믹을 당하면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으로부터 이민 오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형편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문서 전도를 하기 위해 저의 책을 번역한

스페인어책과 영어책을 출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심하였는데 이제는 길 하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 멀리 가서 전도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근처에 거주하는 미국 분들부터 문서전교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와 한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만은 위선자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저하는 지역의 동네 분들에게만은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와 가깝게 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김명옥 목사

(뉴욕에은교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지금 온 세상에 만연된 covid-19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을 covid-19과 같은 질병의 재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covid-19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이 엄청난 재앙에 끌어들여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covid-19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 모두가 가까이 있다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 세상에 너무나 근접했기에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지라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서 한사람도 낙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

하나님의 진노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지으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지으심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며(창1:26)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창2:17). 셋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 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목적에서 떨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세상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

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이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며,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로마서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covid-19을 능가하는, 우리가 도저히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구원의 반열에 속히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바라보고, 진리를 전하며, 이 진리가 온 세상의 근원이요 근본이요 세상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막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이 사건은 covid-19보다도 더 큰 사건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하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진노를 유보하고 계시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치 않음에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꿀지라도, 사람들의 그 허망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하며 뽐낼 지라도, 그의 진노를 인내하시며 참으십니다. 그러

본문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땅은 땅의 질서가 있고 우주는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질서가 있고 자연은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밝힐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피조물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에 도

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합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삶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3.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은 그 마음에 하나님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방식,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당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만방자함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들의 삶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으며,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covid-19의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며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비대면의 충격 속에서, zoom 문화의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pastormyungkim@yahoo.com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27절

온라인 통한 자기반성 시간 만든다!

(1면에서 계속)

또한 온라인 “금식”하는 동안 교인들이 더 많은 시간에 책을 읽도록 격려하라. 교인들에게 손으로 쓴 메모, 감사카드 또는 자녀나 배우자를 위한 편지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금식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4. 신앙 이야기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인들에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비디오로 녹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디지털카메라 또는 스마

트 폰을 사용해 간단하게 1분 또는 2분 동영상만 만든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동영상을 좀 변형시킬 수 있다. 소셜 미디어나 교회 웹 사이트에 매일 비디오를 업로드하라. 시간을 절약하려면 비디오를 예약-게시하는 것이 좋다.

5. 문자기도

만약 여러분이 지역사회의 문자알림 시스템과 연결되었다면,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에게 매일 기도할 때 중요한 성경 단어나 구절을 공유하도록 부탁하라. 일

반적으로 기도 전체를 문자로 한번에 보낼 수 없지만, 기도 요약물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의 문자기도를 기반으로 매일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다.

6. 온라인 선교경험

이것은 교회의 특정 선교헌금(Imagine No Malaria, Global AIDS Fund, Advance 프로젝트 등)을 위한 40일간의 모금 행사일 수 있다. 또한 교인 내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매일 또는 매주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

7. 순례의 길 떠나기

지역사회 안팎에서 실제로 순례를 하러 가고 싶은 사람을 위한 블로그를 만들라. 텀블러(Tumblr)는 사용하기 쉽고 모바일 친화적이다. 일상의 경험, 사진 및 비디오를 공유하라. 실제 밖에 나와 여행을 할 수 없다면 구글어스를 사용해 자신만의 온라인 순례의 길을 만들라.

예를 들어, 바이블로로사(십자가의 길)를 가상으로 “걷기”를 구글어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바이블로로사에는 14개의 스테이션이 있으며, 바이블워크(Biblewalks)를 참조해 구글어스를 통해 14스테이션을 순례할 수 있다.

8. 40일 목상

사순절 날마다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각적 목상을 공유한다. 매일 목상 주제와 잘 맞는 저작권 등록된 상업용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 서비스 또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매일 사진과 목상을 예약-게시해 지역사회에 보낼 수 있다.

9. 관대한 기부

은혜롭고 관대한 기부는 우리 신앙의 핵심 교리다. 교인들이 사순절 내내 다른 방식으로 관대하게 기부하도록 격려하라. 김햄스 버그교회의 교인들은 “크리스마

스는 여러분의 생일이 아닙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부를 한다.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이 그 관대함에 선한 영향을 받아 나눌 만큼 관대한 방식으로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아이디어들은 다가오는 사순절 동안 지역사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모요일 뿐이다. 이 글이 교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확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말에 가장 근접한 표현은 '변화되었다'는 말이다. 성숙과 변화는 신앙용어로서 일맥상통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변화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관찰된다. 봄날에 씨가 뿌려져 뜨거운 여름을 지나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이 변화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생물과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아 새 생명의 감격 가운데 증생하여 다시 태어난 삶,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에도 변화로서의 성숙이 요구된다. 그렇게 거듭난 새 생명은 반드시 성숙과 변화의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한 성숙과 변화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보는 눈, 관점이 바뀌고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이 바뀐다는 것은 삶을 대하는 해석과 분별력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한다.

참된 변화-관점의 변화

참된 변화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그 열매를 다르게 맺는다. 관점의 변화는 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참된 관점의 변화는 반드시 사람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는 꿈을 가지고, 한국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알칸사의 700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구해서 목장을 이룰 꿈을 가지고 40년 전 이곳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러나 결국은 한인도 없는 외진 곳에서 농장을 일구다가 동업자였던 미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두 잃어버렸다. 당장에 먹고 살 것이 궁핍해진 그분은, 거라지 세일을 찾아다니면서 쓸만한 전자제품 중고를 싸게 사서 이를 고친 후에 다시 플리마켓 같은 곳에 내다팔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아마 죽을 만큼 힘드셨다고 하니, 고생은 차치하고서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속은 그 마음의 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두 분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준 것은, 대개 이민 1세대가 그렇듯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두 자녀였다고 한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의 수고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아들 며느리 사위 모두 의사인 여유로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

또 어느 여성분은 이민 와서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했다고 한다. 낮에는 봉제공장, 퇴근하면 떡을 주문받아 팔고, 떡 주문과 상관없는 날에도 쉬는 것이 아

다. 더불어, 그런 고생하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자신의 삶의 관점을 새롭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왔다는 고백이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중심해서 판단하던 그런 못된(?) 삶이, 어느 순간 동일한 일을 두고서도 부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이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2세들 중에, 어린 시절 집에 중요한 편지가 오면 늘 자기에게 당연하듯이(?) 부탁하는 엄마 아빠를 보며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며 때로는 장피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에서 모임을 하면, 영어를 한마디도 자신 있게 못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피하고 싶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겪는 그 눈물과 고통스런 삶의 현장을 우연히 지나치듯 보게 되었는데, 그 고통이 자신에게 전달되면서 동일한 일인데도 전혀 다르게 판단이 되더라는 것이다. 그날도 아버지는 영문 편지를 하나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체면이 있으셨는지 나름 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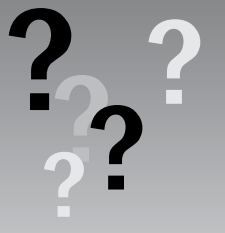
의 이민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변화와 성숙, 그로 인한 열매가 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인 축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국은 입신양명, 자수성가 외에 다른 열매를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성공도 성숙도 구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영혼의 변화를 통한 온전한 삶의 성숙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많은 성공과 꿈의 실현이라는 축복도 그저 제한된 축복에 머물 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혈혈단신 가나안으로 이민 온 이민 1세대였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집에서 길리운 사적 군사들의 숫자만 해도 수백명이 될 정도였으니, 그 가산의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굉장한 거부였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 이삭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늘 문이 닫히고 흉년이 찾아오니, 이삭은 보파리를 싸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도록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이삭은 별로 재미없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난주일 담임목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들었는데 그 예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볼 때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신 분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장로교의 선택사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 팔로스 버디스에서 Kim

A: 귀한 질문입니다. 선택교리는 장로교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1)Total Depravity(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2)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인 선택) 3)Limited Atonement(제한 속죄) 4)irresistible Grace(불가항력적 은혜) 5)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의 견인)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교리는 장로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는 아버지의 장자로 태어나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보다 그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 형에서 보다 남성적이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결국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거룩한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적 은혜를 로마서 9장 13절에는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

사실 선택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으나 에서를 버린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14절에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불평도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등의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주관적 선택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그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느 구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두를 사지 않았다고 다른 구두들이 불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수가 나서 수십 명이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그 가운데 3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 그 구조대원에게 왜 다 구원해주지 우리 몇 사람만 구원해주었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thank you 하고 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여 주었는데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그대로 놔두면 죄악의 강물에 빠져 자동적으로 죽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몇을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변화와 성숙

- 영점(靈點). 열매, 유산

럼 달라지는 것을 본다.

익히 잘 아는 예를 들어보면, 같은 물을 마셔도 젓소라는 존재는 우유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유익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독사라는 뱀의 존재는 같은 물을 마셔도 악한 독을 생산하여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같은 고난의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 점점 독해지고 약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훗날 그 고난을 오히려 축복과 간증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차이,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삶의 성숙도 마찬가지다. 최근 이곳 지역을 배경으로 '미나리'라는 영화가 큰 유행이 되고 있다. 강과 숲과 호수와 자연이 아름다운 니 네임이 Natural State 인 알칸사를 더 잘 소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아마도 당시의 삶에 처지고 힘든 이민자의 눈에는 그런 경치조차 잘 들어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영화를 보면서, 부모세대를 칭하는 이민 1세대의 어려움을 다시금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소셜 같은 이민 1세대

이곳에서 실제 미나리의 주인공 같은 분을 만나게 된다. 대한민국의 땅을 조금 더 넓히

나라 밤늦게 빌딩청소를 다녔다고 한다. 그런 부모들의 억척스런 고생 속에 자란 자녀들이 일찍 성숙해지는 것을 본다.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린 자녀가 명문대를 나와서 미국의 중심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어달리다보니 자녀들의 교육에 잠시 소홀한 틈을 타서, 나이가 많도록 부모의 속을 태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앙의 내용을 생략한 채, 미나리 영화와 관련하여 이민자들의 생활면만 찾아보면 이민자들의 고생담 그 자체는 모두가 소설책 한두 권은 너끈히 쓸 수 있는 분량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사랑, 감사, 은혜의 변화

어떤 기회에 고생했던 이민자들, 그들 자녀들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관된 스토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참 순수하고 순진함이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저들 2세대의 마음속에 따로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예전 1세대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 감동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쉽지 않는 한국말로 부모님의 고생을 이야기할 때, 저들 모두 한결 같이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것이

자를 띄엄띄엄 읽은 흔적을 드러내시면서 읽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늘 귀찮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만큼은 전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어를 못하면서도 이 거친 이민의 땅 미국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겨내신 그 부모님이 너무 위대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날 그날부터 부모님의 편지 읽어주는 일 정도가 아니라, 공부나 생활의 일들을 돕는 것 등등 모든 것에 있어서 남다른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이 더 근사하기도 전에 먼저 밥과 청소를 하고, 동생을 돌보고 그렇게 생활이 저절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부도 자발적인 의지가 작용해서 인지, 모든 것에 발전과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관점의 변화로 인해 성숙의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대부분의 철학과 성숙한 2세 자녀들의 삶의 변화와 내용이 이에 대동소이한 것을 듣고 보게 된다.

현재의 축복, 신앙의 유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일상

그 땅을, 오직 말씀 한 마디에 떠나지 아니하였고 쉽게 말하면 버티고 견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크게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기도대로 정의할 수 있는, 흔히 아이야(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룬 것이다.

부모의 은혜, 자녀의 평생

그렇게 이삭이 순종할 수 있는 기원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다. 먹고 살기위해 영덩이를 들쩍일 수밖에 없는 이삭을 보노라면, 이미 물려받은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 명확하다. 그런 이삭이 어떻게 다시금 번성한 가문, 행통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이 그의 눈을 바귀 놓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친히 번제물 교보제가 되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 몸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분임을,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신앙의 유산과 기억들이,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삭이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그날 땅으로 율기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고자 하였지만 하

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남들보다 100배로 결실하는 복과 창성함을 덧입고, 핏박하던 왕들조차도 그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온 몸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분임을,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신앙의 유산과 기억들이,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삭이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그날 땅으로 율기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고자 하였지만 하

가는 중심에 자신과 자손들을 세우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게 한 것이다.

알칸사를 배경으로 한 미나리 영화의 감동이 고생의 시간들을 지낸 한인들에게 위로와 감격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할 만한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결코 재물의 번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손주 손녀에게까지도 빌딩과 땅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의 관점을 바꿀만한 신앙의 유산, 말씀의 흔적, 기도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어야 나머지도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davidnjon@yahoo.com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젊은 부부가 애완견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요즘 대세인 3개월 된 프랜치불독을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프랜치불독의 없으려 자는 모습은 너무나 태평스럽고, 왜만한 일에는 출사거리지 않고 무게감 있게 행동합니다. 옆집에 개가 아무리 큰소리로 짖어도 같이

경계하면서 짖지도 않고, 불꽃 놀이의 폭죽이 울려도 전혀 놀라지 움직이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의 애완견 프랜치불독의 어른스러운 행동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루는 젊은 부부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거실에서 프랜치불독이 바닥에

배를 깔고 쭈욱 누려져서 자고 있어서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도 프랜치 불독은 태평하게 잡니다. 젊은 부부의 남편이 손으로 프랜치불독을 만지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일어납니다. 젊은 부부는 프랜치불독을 구입한지 4개월 만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프랜치불독의 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귀머거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치불독이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온 한 늙은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중풍에 걸려서 신체적인 부자유스러움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정성스럽게 수발하며 섬깁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수발드는 일이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면서 그만 실수를 합니다.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바지에 대변을 똍니다. 아내는 안타까워하면서 남편에게 따뜻한 말로 말합니다.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셔야 했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의 속도 모르면서” 알고 보니 남편이 신체적으로 연약해져서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과 무관하게 대변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누군가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과 행위를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말 못한 사정인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여 만나셨을 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SBC, 동성애 용인 4개 교회 제명

미남침례교회(SBC) 집행위원회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를 고용했거나 동성애를 지지한 4개 교회를 교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뱀티스트프레스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교단 인증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본회의 둘째 날인 23일 집행위를 통해 내려졌다. 동성애를 지지한 이유로 제명된 교회는 조지아주 케네소에 있는 타운뷰침례교회(Towne View Baptist Church)와 캔터키주 루이즈빌에 있는 성마태침례교회(St. Matthews Baptist Church)다.

자적심사위원회는 두 교회 모두 “교인들과 지도자가 동성애 행위를 긍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며, ‘침례교 신앙 및 메시지 2000’과 일치하는 신앙과 실천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한편 테네시주 세비에빌에 있는 안디옥침례교회(Antioch Baptist Church)는 법정에서 두 건의 성범죄 사실을 자백한 목회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펜실베이니아주 사프빌에 웨스트사이드침례교회(West Side Baptist Church)는 1993년 텍사스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성범죄자 기록에 등재된 데이비드 피어슨(David Pearson) 목사를 고용한 혐의를 받아 제명됐다.

위원회는 이 두 교회에 대해서는 “성폭력에 관한 교단의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침례회는 교회의 제명 사유로 ‘성적 학대(sexual abuse)’를 명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 중에 있다. 교단 지도부는 2019년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올해 6월 내슈빌에서 개최될 총회에 상정한다.

성학대 개정안에는 교단 헌법 3조에 “협력교회”의 자격요건으로 “미성년자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해결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을 돌보는데 무관심하지 않다고 집행위원회를 통해 증명된 교회”라는 규정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美 목회자 31% “출석을 지난해 절반 미만”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코로나 감염사례가 급증하자 대면예배를 한 미국 교회 수가 작년 9월보다 줄었다고 뱀티스트프레스가 2월 22일 보도했다. 이 조사는 올해 2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신교 목회자 430명을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76%는 교회가 대면모임을 가졌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 9월(87%)보다 11% 감소한 것이다. 반면, 대면예배를 재개한 교회들 중 팬데믹 이전의 출석률을 회복한 교회는 절반 이하에 그쳤다.

지난달 목회자의 10명 중 3명은 작년 1월에 비해 교회 출석률이 70-100% 수준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7%는 50-70%, 31%는 절반 미만이라고 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전무이사는 “교회는 지역 상황과 교회 내 사례에 따라 직접 만날 시기를 계속 고려하고 있다”면서 “교회가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교인들은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류 개신교 목회자(39%)는 지난 1월 대면예배를 갖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복음주의 목회자(1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개신교 목회자 10명 중 9명(88%)은 교회 참석자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 7월(28%)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 10명 중 3명은 교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 여름(5%)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젊은 목회자(18-44세)들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 출석자를 잃을 가능성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 남부(38%)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교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50%는 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었으며, 27%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팬데믹이 교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목회자(90%)는 교회가 대유행 기간 동안 서로의 필요를 도왔고, 4명 중 3명(73%)은 교인들이 팬데믹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도왔다고 했다.

또 목회자 10명 중 9명(88%)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새로운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참석했거나 접속했다고 답했다. 그 중 목회자의 25%는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교회 소그룹 및 주일학교 수업과 관련, 목회자의 62%가 어떤 식으로든 모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분의 1(36%)은 대면모임을 갖고 있으며, 25%는 온라인이나 전화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목회자의 3분의 1은 주일학교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6%는 더 이상 수업이 없다고 답했다.

소그룹 모임과 관련하여서도, 주류 개신교 목회자(56%)는 복음주의 목회자(26%)보다 두 배 이상 대면 만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회자 5명 중 1명(20%)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소그룹이 끊겼다고, 20명 중 1명 미만(4%)은 소그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회자의 41%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를 갖지 못했으며, 교회의 소그룹 또한 온라인이나 전화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맥코넬은 “절단 기술 덕분에 대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만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다시 시작할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J&J 백신, 2일부터 접종...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이 신생아와 영유아, 임신부를 상대로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임상에 성공할 경우 백신 접종 범위가 저연령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J&J가 신생아 등 영유아와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임상시험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보스턴 어린이병원 정밀백신프로그램 팀과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시작되는 이번 임상에 성공할 경우 J&J는 접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J&J가 FDA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2-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그 직후 18세 미만 전체 연령군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임상 연구를 주도하는 오페르 레비 하버드대 교수는 “학교를 재개하기 위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건 아니다”면서도 “학부모의 공포심을 덜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돕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18세 미만 인구의 접종도 사회 전체의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의 이같은 계획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존슨앤드존슨(J&J)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 권고를 수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로셀 웰렌스키 CDC 국장은 ACIP 권고 수용 사실을 밝히며 “팬데믹의 끝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탄생했다”면서 “J&J 측이 수송 중인 백신 초도 물량이 도착하는대로 접종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웰렌스키 국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새 백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했다.

현재 J&J는 미 정부에 390만 도스의 백신을 수송 중에 있다. 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일부터 최초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더힐에 전했다.

다만 J&J 백신의 효능과 관계없이 일부 지역에서는 J&J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더힐은 미 정부는 모든 지역에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두 종류로만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J&J 백신이 접종 승인을 받아내고 접종 대상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미 정부의 ‘조기 투자’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J&J에 총 10억달러 이상을 직접 지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1여년 전에는 4억6500만달러 규모의 백신 R&D 연방후원 대상으로 J&J를 선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WHO “올해 말 코로나 종식, 비현실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3월 1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영리하게 대응한다면 입원과 사망, 그리고 팬데믹(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된 비극을 끝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승인된 여러 백신이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을 억제하는 데 힘을 발휘한다는 전제에서다. 그는 “백신이 사망과 입원뿐만 아니라 전파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팬데믹을 통제하는 쪽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마리아 밴 쿠크 WHO 코로나19기술팀장은 특히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바이러스를 그냥 두면 재확산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회원국들에 코로나19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별다른 방역책 없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은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하며 코백스의 첫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저개발국의 취약층을 배려하지 않고 비교적 감염 위험이 적은 자국의 건강한 성인에게 백신을 우선 접

종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영화 ‘미나리’에 담긴 기독교적 가치 4가지

“내가 기도했어요(I prayed!)” 지난 28일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자 아이작 정(정이사) 감독의 7살 딸 리비아는 “내가 기도했어요(I prayed)”를 세 번이나 외치며 아빠를 꼭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 후보들은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했다. 딸을 안은 채 화면에 등장한 정 감독은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 만든 가족 이야기이다. ‘미나리’는 미국의 언어나 그 어떠한 외국어도 아닌 자신의 언어(language of heart)를 그리고 있다. 서로가 이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시골 마을에 정착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성별 감별사로 일하던 제이콥(스티븐 연)은 농장을 일구겠다고 아내 모니카(한예리), 딸 앤(노엘 케이트 조), 막내아들 데이비드(엘런 김)를 데리고 아칸소주로 향한다. 이들 부부를 돕기 위해 모니카의 어머니 순자(윤여정)도 미국으로 건너온다. 영화는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는 가족을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와 중첩해 감동적으로 펼쳐놓는다.

1일 미국 기독교 매체인 크로스워크와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미나리에는 4가지 기독교적 요소를 담고 있다. 첫째, 미나리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그는 8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주 부둣길, 여동생과 함께 이주했다. 정 감독의 가족은 농장에서 살면서 다양한 불행들과 마주해야 했다.

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80여개의 기억들을 영화에 담았다고 했다. 그는 “미나리가 주는 메시지는 비극과 희망에 관한 것”이라며 “이런 메시지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더욱 실감이 난다”고 했다.

둘째, 미나리는 희망을 주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고 있다. 정 감독 가족의 기독교 신앙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에 나오는 트레일러 벽에는 십자가 등 기독교적 상징물이 있다. 또 어머니가 찬송(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주님께 돌려’)을 듣는 장면이나 가족들이 시골 교회에 가는 모습이 등장한다. 가족들은 주일예배에 참석해 대부분 백인인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교회 목사는 설교단에서 가족들을 향해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쁘다’고 말한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낯선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셋째, 미나리는 힘든 노동에 묵묵하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다. 제이콥은 중간에 일하는 양계장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제이콥은 아칸소에서 성공한 농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이 밟고 서 있는 땅을 가리키며 ‘미국 최고의 진흙’이라고 말한다. 그는 농장 일을 통해 미국 한인들에게 한국 채소를 팔 것이라는 계획을 아내에게 말한다. 무엇보다 영화에서 제이콥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서 성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넷째, 미나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 미나리는 두 가지 기도 응답을 포함한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에 대한 실현이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미국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헤드라인’은 “미나리는 전형적인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종교 영화는 아니지만 제이콥과 모니카는 예기치 않은(기독교적) 축복을 경험한다”며 “가족 친화적인 영화로 인내와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교회 의존도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미국 의존도가 높았다. 처음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 미국 선교사였다. 일제하에서 1938년을 기점으로 중단되었던 선교사들의 공식 활동이 1945년 광복 후 서서히 재개되었지만, 주로 6.25전쟁 이후 활발히 활동하면서 복음전파와 함께 미국교회가 보내는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사역을 중시하였다. 국가적 지원과 별도로 미국 선교사들은 1970년대까지도 생필품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교회의 미국교회 의존도는 물질적인 면보다 신학적인 부분에 더욱 분명했다. 장로교회를 예로 들어보자. 초기에 박형용 목사, 김재준 목사, 한경직 목사, 박윤선 목사 등이 미국 신학교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후로도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미국 교회로부터 신학적 영향을 받아왔다.

미국정통장로교회(OPC)로부터 1960년도에 파송 받은 간하배(Harvie Conn, 1933-1999)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고, 사당동에 소재한 총회 신학교에서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전임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던 그가 변증학과 신약학목을 중시하였지만 거의 모든 과목을 두루 가르쳤다. 사실 한국교회가 현재와 같이 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훗날의 일이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다. 여기서 보수적이라 함은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신앙의 형태를 말한다. 또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자유주의신학,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려했던 자유주의신학과 대조되는 사조를 가리킨다.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시작되어 독일에서 꽃을 피운 자유주의신학은 미국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대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미국 교회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었기에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에 적지 않은 신학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신학적 이견으로 인해서 서로 등을 돌리고 따로 새로운 교단을 세워 분리하는 일도 있었다. 20세기 초반 이후에도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신학사상이 소개되었지만 보수적 경향이 강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깊은 영적 늪에 빠지게 한 것은 매우 미국적인 내용을 지닌 번영복음(Prosperity Gospel)이었다. 번영복음은 내용과 목적 면에서 기복신앙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복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으며, 나아가서 신앙인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번영복음

번영복음은 육체적 병의 근원은 잘못된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한 생각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183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유행했던 '새로운 생각 운동(New Thought Movement)'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신비주의와 종교성이 혼합된 형태로서, 내가 나올 수 있다고 믿을 때 곧 치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번영복음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에세크 케넌(Essek Kenyon, 1867-1948)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며 '긍정적 고백'을 강조하였는데, 대학에서 그 당시 미국 문화에 깊이 젖어있

Roberts, 1918-2009), 아사 알렌(Asa Allen, 911-1970), 토미 오스본(Tommy Osborn, 1923-2013)과 같은 부흥사들은 모두 마음의 확신을 입술의 고백으로 실천하여 언고자 하는 바를 취하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였다.

번영복음에 관한 책들이 발간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치유와 번영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면 반드시 수배의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일종의 영적 공식에 대한 확신이 기초에 깔려 있었다. 백 불을 헌금했는데 얼마뒤 만 불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간증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 반응을 일으켰다. 많은 책들이 번역되었다.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며, 부흥사들이 직접 치유집회를 인도하는 곳마다 성도들이 몰려드는 열풍이 일어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교회에도 번영복음이 소개되었다. 자신이 확신하는 만큼 결과가 보장된다는 가르침은 열정적인 종교성을 지닌 성도들의 신앙서사와 일치하였다. 더욱이 그 당시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먼 된다'는 신념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더욱 쉽게 접목될 수 있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부흥사들이 남산 야외음악당 또는 공설운동장과 같은 큰 장소에서 치유집회를 열면 구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다.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여과 없이

Hagin, 1917-2003)의 사상으로부터 번영복음이 전혀 다른 복음인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그는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란 책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법적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이 떠나라고 명령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시 대단한 믿음의 선언인 듯하지만, 해킨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구속적 죽음을 번영이란 매우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한다.

해킨은 하나님을 최고 부자로 소개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이 그에게 속한 것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돈줄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반드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어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기대감을 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헌금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니 믿음으로 과감히 투자할 것을 권면한다. 이뿐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매우 부자였다고 주장한다. 탄생하자 곧 금, 유향, 몰약과 같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였으며, 엄청난 가치를 지닌 향유가 자신의 발에 부어지는 것을 조금도 불평해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군인들이 체비를 뽑아 가지려했을 만큼 좋은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한다. 아무쪼록 그가 이해하는 십자가 사건은 곧, 부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근거를 제공하는 축복된 사건이다.

간혹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병에서 낫고 부자가 된다고 원하는 일이 모두 이뤄진다고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할 때가 있다.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믿음의 선언이 지닌 능력을 철저하게 믿기에 누구든지 자신 있게 기독교 신앙으로 초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킨 번영복음의 영향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치유와 번영이란 현세적인 축복에 세뇌를 받은 뒤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언젠가 기독교 신앙을 떠날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통해 삶의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장수하고 성공하여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생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평생토록 병과 씨름하고 가난에 찌들려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온전한 신앙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0)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 (17) - 번영복음의 늪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온전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믿음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위해 사는 것 신비주의와 종교성 혼합된 번영복음, 하나님과 같은 새 피조물 된다는 다른복음 경계

던 '새로운 생각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가 심취했던 케직 성경 운동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듯하다. 아무쪼록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번영복음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기 체면과 같은 신앙을 중요시 하였다. 케넌은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성경에 약속된 사실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반드시 효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자연적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그의 강조점이 후에 오순절운동에 소개되었으며 1945년대 이후에 와서 번영복음은 재물을 얻는 것과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지쳐있던 미국인들에게 믿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치유와 부를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 1898-1993), 오랄 로버츠(Oral

1970년대 이후 80년대에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부흥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즉시 병이 낫는 장면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치유 손수건을 구입하여 아픈 곳에 대고 기도하면 병에서 나는 것이라 빨리 전화를 걸어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유치한 모습마저 흔히 볼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심고 거두는 인과응보 법칙이 미국인들에게 통했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간증자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은 믿음이 없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또한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보상이론에 근거한 축복방법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다.

다른 복음

20세기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이 되었다. 미국에서 출발한 번영복음이 세계 교회로 소개되자 순간적으로 대단

번영복음을 받아들인 뒤 믿음으로 병마와 가난을 물리치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치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급속도로 번영복음이 전해졌다. 한국교회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저자 베니 힌(Benny Hinn, 1952-)일 것이다. 그는 21세에 신유집회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뒤 1974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의 글과 설교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성경에 계시된 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를 하나님과 같은 신성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를 진실 되게 믿는 성도는 작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작은 신이 되었기에 입술의 고백이 능력을 지닌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한다. 믿음의 생각과 말로 치유를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은혜롭게 들리지만 실상 그는 전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창시자 에세크 케넌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케네스 해킨(Kenneth

covenantcho@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서부(CA)교회안내'.

리더십 코멘터리 (130)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절망의 시대, 뉴리더의 탄생을 기대한다

희망을 갖고 리더십 전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이라는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다.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위기가운데 지혜롭게 고난을 극복한 칭기즈칸을 생각해본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세계를 움직인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그것은 그가 동서양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칭기즈칸만의 리더십과 전략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 칭기즈칸은 타타르족의 습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그의 부족은 뿔뿔이 흩

산년 칭기즈칸이 맨 손으로 세계역사를 다시 쓰는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 고난 극복의 여정을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행복한 고민인지도 모른다.

리더는 오늘 어렵고 힘든 위기가운데서도 내일은 성공하고 행복하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며칠 뒤에 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리더는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리더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리더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먼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빠른 자가 아니라 꾸준히 걷는 자가 인생에서 영향력을 발휘

희망의 끈 놓지 말고 다양성 존재하는 최고 팀 조직 분별력 있는 행동과 예리한 판단, 겸손한 마음 소유

어지고 동족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갔다. 칭기즈칸이 처음부터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위대한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의 삶을 파괴한 원수를 갚고 흩어진 부족들을 한데 모아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소박한 꿈을 가졌었다. 절박한 환경에서 칭기즈칸은 동족들을 설득했고, 비전과 공동의 목표가 분명해지자 전국 사방에 흩어진 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투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족의 노인들이라도 그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고, 동족이라는 관계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들을 대했다. 칭기즈칸은 오직 쓰디쓴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리더십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

사람들은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단결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또한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인 비전이 클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리더십을 깨닫게 된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리더십 전략으로 미래를 만들었던 칭기즈칸의 도전적인 리더십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역사의 교훈이다.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리더십 전략을 배워나가자. 고난 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지루한가? 거친 풍파가 닥칠 때 리더의 심장은 고동친다. 혼돈의 시대에 비전으로 충만한 리더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 모델

와튼 스펀의 마이클 유심 교수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로 칠레 광업부 장관이었던 라우렌세 골보르네를 꼽았다. 골보르네 전 장관은 2010년 일어난 광산 붕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골보르네는 어떻게 1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광부 33인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까? 첫 번째는 존중과 신뢰였다. 골보르네는 슬픔에 오염하는 가족들에게서 신뢰를 얻어냈다. 법적으로 정부가 개인이 소유한 광산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었지만, 골보르네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하고 대통령을 설득해 가족들 마음을 얻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다. 때

물론 광산에 광부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내린 결단력과 탁월한 전략 짜기, 팀 구성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유심 교수는 "골보르네는 즉각적으로 광부들 가족문제만 담당하는 팀, 구조를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는 팀, 구체적으로 구출할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팀, 광부들이 구조됐을 때 이들 생명을 유지시킬 팀 등으로 팀을 세분화했다"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최고 팀을 조직한 가장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행동하는 영적리더의 체크 리스트

리더는 명철한 정신과 유쾌한 얼굴의 소유자여야 한다. 또한 분별력 있는 행동과 예리한 판단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리더십은 훈련의 산물이다. 행동하는 영적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첫째, 바른 가치관을 소유하라. 시대를 앞서가는 네트워킹을 통해 리더로서 홀로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 듣어라. 타인의 충고나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통해 성숙한 리더가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유혹을 극복하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넷째, 시간을 잘 활용하라. 성장하고 생산적인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기회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성경적인 경제관

을 가지고 리더로서 돈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존 스타트 목사나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유명인사를 사용하시라고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리나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명대학 출신이거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정말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제자들을 주목해보라.

절망의 시대를 이끌어갈 뉴리더란 누구인가? 명문대를 나오고 사역경험이 많은 베테랑 리더가 뉴리더가 아니다. 성경적인 뉴리더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그릇을 들어서 전능하신 손으로 빚으시고 귀한 보배로 채우셔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범한 사명을 감당할 평범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영적훈련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요즘 당신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먼저 나는 기도와 성경읽기를 매일 하고 있는지... 경건의 시간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 상태를 측정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그런 경건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서 내 삶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다.

그런 경건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나?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살리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사는가? 나로 인해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 하고 있나? 그렇다. 나의 영적 훈련은 내가 얼마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이리라.

새해하고도 석 달에 접어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잘못된 모든 삶을 지우고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리라. 그래서 새해에 들어 몇 가지 영적 훈련을 결심해 본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 않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도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리라.

둘째로 나의 믿음을 자주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지식 자체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떨어져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 믿음이 강화 되리라.

셋째로 습관 깨부수기 훈련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에 걸려 살아가고 있다. 매일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잘못된 습관도 비밀비제 하리라. 중독은 거기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매일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깨부수야 할 중독성 습관은 무수히 많다. 그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훈련을 해보리라.

넷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훈련이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골3:17).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이리라.

그렇다. 마치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몸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와 생각이 아닌 가슴이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가슴이 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남은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성이 드러나며 가슴이 막혀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가슴을 열어주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삶이 되리라.

changsam01020@gmail.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영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전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04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예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전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단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p>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p>	<p>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화-금) 오전 6:30(토) 금요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공요영양 기도회: 매월 둘째(일) 오후 7:30 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첸시오 대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

사람이 받는 축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되고 만남의 연속성을 통해 역사를 이루게 되고 만남을 통해 성공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룻기서에 등장하는 여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행의 인생의 늪에 빠져버린 한 젊은 여인 룻이 만남의 은총을 통해 드라마 같은 흥미진진한 역사적 미담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서는 별로 아름다운 미담이 없던 사사사대에 일어난 꽤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범적 미담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초실질 곧 맥추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룻기서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이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교훈으로 꼭 짜여진 교육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민이 성지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바람직한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녀들 특히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효도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사람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만남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비록 이삭을 줌은 일일 지라도 성실하게 이삭을 줌은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합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들판에서 곡식 이삭을 줌 룻의 내용을 그림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이삭 줌의 여인이라 그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구약성경의 순서에서 룻기는 잠언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마도 잠언 끝장에서 소개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룻이란 여인을 의식한 듯합니다. 잠언에서 언급하는 여인의 모델이 룻이란 것이지요. 한마디로 룻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듯합니다.

룻기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믿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지만 그로 하나님의 선택케 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1:16). 어려움이 빠진 이웃 특히 가족을 부모님을 효도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도 효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룻1:16). 주인 곧 윗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나 주인을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네 일꾼들은 하나같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룻2:4).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헬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

시기를 원하노라”(룻2:4). 자기 동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아닐 지라도 너그러운 용납하고 알아 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 폭넓은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룻기서라는 아름다운 드라마에 등장하는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드라마를 완성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를 통해 역사적 유명세를 타는 내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사람으로서의 좋은 교인이 되어 좋은 교회를 이루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남을 축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나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만남이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yd777@hotmail.com



미국신대륙 정복사의 두 가지 과오 인디언 전쟁과 노예제도...그 역사왜곡(5)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결론(Conclusion)

청교도 이주 400주년을 맞아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을 연재하며 필자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주제가 인디언 전쟁과 노예제도였다. 첫째, 인디언과의 전쟁, 즉 “가난한 7족속”을 멸하듯이 인디언 원주민과의 대규모 전쟁을 통한 학살(?)에 대한 부분과 둘째,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대한 납치,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의 종횡사태라 할 수 있는 노예제도는 치유 불가능(?) 역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원주민 대량학살 위에 세워진 미국의 건국 두 기둥-전쟁과 기독교”(자주시보), “갈빈 사상에 뿌리 둔 청교도, 미국 정착해 인디언 학살주도”(천지일보), 심지어 일부 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교인들까지도 위 주장에 동조, 또는 오해(?)하여 청교도 정신과 신앙에 대해 폄하(貶下)하며 냉소(冷笑)한다.

그러나 자랑스런 위대한 유산 청교도 정신과 사상으로 세워진 미국역사, 즉 400년 동안 미국 신대륙 영토 확장사에서 인디언 학살과 노예제도는 백인 정착민들에 의한 대표적인 두 가지 비 성경적(Unbiblical) 역사적 과오(Peccability)임이 분명하나, 위 주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왜! 이런 선과 악, 이원론적 구조가 400년간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들에게... 오직! 성경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 당시 청교도들에게 역사적 과오로 자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많은 시

간 고민과 번민을 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및 정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청교도의 사상과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은 1620년부터 영국 식민지로부터 완전 독립된 1776년 7월 4일 전까지는 영국 국왕의 통치 가운데 즉 민간인 신분(?)인 청교도들이 인디언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닌 영국 왕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영국 군인들이 전쟁을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된 이후에는 미국 정부군 자격으로 인디언과 전쟁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엄밀히,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 전쟁은 청교도들 노예해방선언문(Emanicipation Proclamation 1863.1.1)과 인디언 원주민들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영국 본토의 국왕과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 그 명령에 동조한 일부 청교도 정치(政治) 목사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비성경적 이론을 제시하며 선동한 일부 청교도 강성, 극단의 정치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있기에 역사적 비판은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구약의 “가난한 7족속”과는 달리 땅 끝까지 복을 전파(마24:14), 구원의 대상인 인디언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빌자한 인디언 학살과 핍박은 참으로 악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비성경적 과오인 노예제도 역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과 같은 범죄 행위

성경을 모방(?)했지만 아주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범죄 행위이다.

성경은 사람을 납치해 매매한 경우와 영구적인 종으로 삼은 경우를 정죄했으며(암1:6) 적발 시에는 사형(신24:7, 출21:16)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것은 빛이나 가난 때문이다. 즉, 노예가 됨으로서, 빛을 갠거나 최소한 거주할 곳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신명기(申命記)의 노예제도는 종신(終身)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6년 동안 종(노예)으로 일을 했으면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



청교도의 인디언 전쟁과 노예제도는 비성경적 역사적 과오 새 역사의 주인의식 갖고 케노시스 예수정신으로 승화돼야

강성, 극단의 민병대와 정부군에 의해 자행된 인디언과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청교도와와 전쟁이 아닌 “미국 백인정착민(White Man)과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인디언 사이의 정복전쟁”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과관계(因果關係)상 제국주의와 야합(?)하여

였다. 특히 강제로 아프리카에서 납치, 인신매매를 통해 노예로 팔았고, 또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당시 노예(하인) 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노예는 7년 계약으로 주인에게 봉사해야 했다. 그러나 충실치 못하고 게으르고... 주인에게 항의, 거칠게 행동하면 풀려나지 못했다. 이는

한다(신15:12). 그리고 그 종이 퇴임할 때는 부의 일정 몫, 즉 돈을 주라 명령(신15:13-14)했기 때문이다.

거상(巨商) 새뮤얼 슈얼(Samuel Sewall)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노예제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청교도들의 공(功)을 무시한, 전부를 부인하면 절대 안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 청교도들은 원주민 인디언을 박해, 살해에 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인디언 선교였다. 물론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제국주

의(帝國主義)에 동조, 야합한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청교도 목사들과 선교사들 및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진정 인디언들을 품고 사랑했던 것 역시 역사는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들 중 한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선교사는 인디언들을 위한 헌신적 삶, 즉 29살에 순교의 재물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인디언과의 전쟁(학살?)과 아프리카 흑인을 납치, 인신매매한 비성경적 노예제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역사적 못 자국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현 청교도를 포함한 모든 백인 후손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잡혀와 노예로 인간 이하(?) 삶을 살았던 모든 분들에게 그 과오를 인정하고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치유(治癒), 승화(昇華, Sublimation)할 때라 본다.

또한 인디언들과 흑인 노예의 후손들은 쉽지 않겠지만 가해 백인들을 용서하고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버리므로 창조적 에너지가 충만한 위대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국민으로서 새 역사가 이루어질 간절히 소원한다. 또한 종말의 시대 상황 속에서 새 역사의 주인의식(Owner Consciousness)을 다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 부정적 과거에 매몰되어, 원망과 불평 의식에서 탈피하여, 창조적 에너지가 충만한 미래지향적 위대한 미합중국 국민으로, 아니 진정한 케노시스(자기 비움) 예수정신으로 충만한 청교도적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으로 승화(Sublimation) 되어야 한다. “God bless America” kimjoyh@gmail.com

[편집자] 2020년 코로나 기간 동안 “청교도 신앙회복 및 부흥”에 대한 글 32회분과 그 후기 5편을 매주 연재한 필자 김경일 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 과도기...

(2면에서 계속) 한 가지 불분명한 측면은 코로나19 발병률이 주민 10만 명당 일일 사례 수 대신 주민 10만 명당 7일 또는 14일 동안의 총사례 수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표에서 일일 수치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해당 지역 보건부의 숫자를 표에 적용하도록 변경하거나 이 정보가 포함된 국제적 기준치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하지 않

으면 실제 감염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검사가 불충분하게 이뤄진 지역사회에서는 활동을 시작하는 데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더 명확한 지침이 나오면 표의 기준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교회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더 높거나 낮은 기준치를 선택할 수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더 적은 수의 개인으로 각 기준치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유효

한 더 중요하다. 많은 지역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감염률이 급증했음을 감안할 때, 감염률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성도를 위한 실내모임을 허용할 수준으로 감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4. 성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도록 격려한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됨에 따라 많은 교회 신자들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낮은 집단에 속하며 일부 사람들은 선택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유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통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행동 변화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교회 참석자들이 모이기 전에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동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단 순히 다른 사람들이 숨 쉬는 공

기를 공유하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줄이고 (최소 15분 동안 다른 사람과 2미터 이내에 있는 것으로 정의됨)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마스크, 거리두기 및 환기가 잘되는 공간 사용을 늘림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 이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헌만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위험을 낮추기를 요청하는 것은 공정합니다. 모임 전에 백신 접종을 요

청하는 것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구제 미국인 교회의 장로 엘트리가 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도 했다. “교회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침을 실행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한인교회 설립100주년 기념예배

뉴욕한인교회(담임 이영보 목사)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4월 18일(주일) 오후 5시 새건축 입당 및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한편 뉴욕한인교회는 2월 28일 삼일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으며, 3월 1일에는 매스피스에 위치한 마운트 올리벳 세미타리에 안장된 환기환, 염세우 애국지사 및 무명인 묘소참배를 인도했다.

▲문의: (212)662-1422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줌 화상으로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를 개최한다.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6시20분(미동부시간) 6주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1-6학년. 영어로 진행되며 1시간은 전체프로그램으로 20분은 소그룹 시간으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60달러(둘째와 셋째는 40달러) <https://forms.gle/qC5WNC15Dm3P2dw38>

▲문의: (646)300-4790

뉴욕성령성결교회 김태근 목사 별세

뉴욕성령성결교회 김태근 목사(사진)가 2월 23일 오전 4시 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7세. 장례예배는 2월 24일 오후 6시 중앙장사사에서 가족장으로 드려졌다.

고 김태근牧사는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 한국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서울 남현성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 1989년 미국으로 이민 뉴욕성령성결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2006년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장을 역임했으며, 뉴욕교협 서기로도 일했다. 2년 전부터 투병을 해왔으며 유족으로는 조예경 사모와 사이에 1남이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잇달아

지난 2월 26일 더글라스톤에 사는 이혜순 권사가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위해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 1천 달러를 전달했다. 이혜순 권사는 6년 전부터 한인노숙인들에게 해마다 삼계탕을 공급해왔고 어려울 때 렌트비를 협조해준 바 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뉴욕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김무환 전 회장이 쉼터구입 후원금으

로 1,000달러를 전달했으며 같은 날 David Kim은 마스크 3,000장을 기증했다.

뉴욕나눔의집은 리스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쉼터구입 후원문의는 전화(718-683-8884)나 홈페이지 nanoomhouse.com를 참조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코로나시대의 기독교” 주제

뉴욕교협 세미나, 주강사 김재열 양민석 김종훈 목사

뉴욕교협이 지난 2월 25일 “코로나시대의 기독교”라는 주제로 포럼 형식의 세미나를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 뉴욕초대교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1.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주일성수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2가지 주제를 3명의 강사들이 발제하고 이어서 5명의 패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는 세미나에 앞서 한 예배에서 “우리의 씨름은”(엡6:10-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문 목사는 “하나님의 뜻은 주어진 계시의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역사적 상황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개인의 실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분문에서 언급된 우리의 씨름(struggle)은 영적 백병전이다. 진리, 평안, 믿음, 말씀으로 영적 투쟁을 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가자. 믿음의 헌신을 보여 오늘의 모든 모습을 후대에 남겨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첫 강사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는 주제에 따른 자문자답으로 1)주일예배를 꼭 교회당에서 드려야 하나, 교회(당)의 의미는? 에 대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공동체(에클레시아)로 △주일예배와 공적예배는 공동회집 성격을 요구한다 △교회와 공동체 성도의 교통신요를 갖는다 △교회집사체가 불가능한 재난 전까지 공적예배 유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주일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교회 전통을 꼭 지켜야 하나? 에 대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주일성수의 본질인 주일을 공적 예배일로 지켜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세 번째 강사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장소중심이나 제도적 교회론에서 관계적 공동체로 생명이 소통되는 교회론(



뉴욕교협 '코로나시대의 기독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두 번째 강사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담임)는 “예배의 공간적 논의-반드시 교회당(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소주제를 붙이고 코비드19이후 교인들의 예배참여 방식과 의식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교회당(예배당-건물)의 효율성에 대해 교회의 기능을 담아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기체적 공동체 연대감 △사명공동체로서 역할 수행 △성경공동체를 만들고 은사활용을 언급했다.

또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존속해야 하며 내면적 거룩뿐 아니라 외면적 거룩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온라인예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배할 수 있다 지체들과 거리제약을 넘어 연결 가능,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교육과 전도에 활용할 수 있다. △역기능은 사이버교회의 활성화와 앞서 언급한 교회당의 효율성에 역행하며 편리성에 물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강사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장소중심이나 제도적 교회론에서 관계적 공동체로 생명이 소통되는 교회론(

요일1:1-4)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일성수에 대해서 뿌리는 안식일에 있고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에 있다. 그러므로 주

“산위의 동네”에 살며 시명 다하자

퀸즈장로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가 설립 47주년을 맞아 2월 28일 주일 오후 4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산위에 있는 동네”(마5:14-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라고 물은 뒤 “우리가 사는 동네는 산위의 동네(교회)와 산 아래 동네(세상)로 구별된다”며 “산위의 동네의 특징은 첫째, 복음으로 산다. 즉 은혜로 살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이다. 둘째는 사랑으로 산다. 빛을 비추며 사명으로 산다. 우리는 산위의 동네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과 찬양이 마르지 않게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또 이어진 47주년기념영상의 주제가 오늘 설교제목과 일치한 것에 대해 강조했다. 영상 방송부와 사전에 주제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행사 전날 주보를 본 영상부가 놀라서 김성국 목사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김 목사는 “설립 47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린다”며 “이 벽간 예배의 감동을 갖고 더 큰 물결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도 가졌다. 장학금은 1년간의 교인들 후원금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초등부 3명, 중등부 5명, 고등부 8명, 청년부 3명 등 총 19명

일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일성수의 핵심은 주일예배에 있다. 온라인은 최선이 아니므로 펜데믹이 끝나면 모이기를 힘쓰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1년간 뉴욕에일장로교회 목회적 상황을 간증했다.

이어진 패널은 주효식 목사, 박마이클 목사, 이준성 목사, 박대규 목사, 조원태 목사가 질문했으며 현장 질문도 있었다.

문석호 회장은 세미나를 마치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하며 영혼 구원의 성장이 지속돼 한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확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의 결론은 없지만 오늘 나온 얘기들을 마음에 담고 각자가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에게 전달됐다. 장학생들은 부서별로 예배를 주제로 한 책을 선정해 독후감을 제출했으며, 장학생들은 예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한 영상을 이날 상영했다.

예배는 중국어찬양대의 서창으로 시작해 기도 켈리지 목사, 성경봉독 송요한 목사(러시아회중), 말씀 김성국 목사, 47주년기념영상 상영, 화답찬양 글로리아싱어즈, 명예권사 추대 패 수여 정한국 권사, 특별연주 명수현 학생, 장학금 수여, 글짓기 발표 이예슬(고등부), 축복기도 김도현 목사(영어회중), 특별찬양 아이노스(고등부양상), 광고 및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기념예배에 앞서 오후 3시30분에는 “퀸즈장로교회 역사관...위에서 앞으로” 개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관 2층 엘리베이터 옆 벽 공간을 전시관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수하고 역사관으로 만들어 고 장영춘 목사의 사역을 전시하며 퀸즈장로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게 됐다. 또 스크린을 통해서 퀸즈장로교회의 역사가 계속 소개된다.

퀸즈장로교회는 현재 오전 5시45분부터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역사관 개관기도회를 마치고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담임목사와 장학위원, 장학생들이 기념촬영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매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254)501-4933(C)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c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자였다”

3.1절 제102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

제 102주년 3.1절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가 3월 1일 오후 4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미주한인재단LA, 미주정치인연합회,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가 주최하고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그레이스송) 주관으로 열렸다.



제 102회 3.1절 기념행사에서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기념행사에 앞서 박세헌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감사예배는 여호수아 지 목사의 기도 이어 강순영 목사(전 자매대표)가 말씀을 전했다. 강순영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자였다”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장 1절-4절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나라를 위해 순교한 이들을 열거하며 “대한민국이 선교대국이 되고 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차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선화 선교사(아프리카 말리위)의 헌금기도와 영구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념행사는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및 미국가 제창,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은 뒤 미주3.1여성동지 그레이스송 회장이 3.1운동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념사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병만 회장(미주한인재단 LA), 한기형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고문), 김순희 회장(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이 맡았다.

한기형 목사는 “3.1 정신을 통해 무엇인가 깨닫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인간성을 회복하는 자유운동, 인권운동이 회복되고, 온 국민이 연합하는 애국운동이 되며 3.1운동이 무저항운동인 것처럼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따라 교회와 민족이 하나되자”고 기념사를 전했다.

축사는 최학량 목사(미주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 회장)와 최민규 회장(남가주유교동지회

회장)이 맡았다. 또한 15세 목회자인 샘신 목사(세계기도모임 자원위원)의 3.1절의 의미를 듣기도 했다. 또 이 행사를 주관한 3.1여성동지회 그레이스송 회장의 감사말이 있은 뒤 3.1절 노래를 합창하고 만세삼창을 부름으로 기념행사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글짓기대회 시상식은 샘신 목사의 사회로 최학량 목사가 기도한 뒤 그레이스송 회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10-12학년 대상: 이수빈, 신상준 1등: 김현수, 노솔, 2등: 장은서, 이하나 3등: 김해맞이, 석비아 장려상: 김성훈, 이동천, 최민기 입선: 김희수, 박제승, 메이슨오, 앤디구 △7-8학년 1등: 송현서 2등: 박민, 김수정 3등: 김동희, 송예인 장려상: 박성현, 이주호, Ravi Gadasally 입선: 석아미, 김해두리, 이진서 △4-6학년 1등: 김지민 2등: 이윤서 3등: 김예지, 박세린 장려상: Alina Menon, 민재하 입선: 국소울, 김지원, 김유정, 허미셀 △K-3학년 1등: 김현 2등: 최수민 3등: 박준성 장려상: 이민혁, 권조셉 입선: 이현서, 박나래, 박시울.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 13회 국제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 소그룹” 사역인 커피브레이크 제 13회 국제 컨퍼런스(13th Coffee Break Small Group Conference)가 6월 18일(금)부터 26일(토)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소망을 따르는 기쁨”(Joy in Hope)란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나눔을 가지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www.coffeekoreakorea.org)를 참조할 수 있다. 조기등록은 3월 31일까지이며, 등록마감은 5월 10일까지. 1970년대 전도를 목적으로 시작된 커피브레이크는 북미주개혁교회(CRC)에 속한 사역이지만 미주뿐 아니라 현재 세계 55개 교단에서 전도와 제자양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문의: 계순정 준비위원장(949)415-4236, 박웬디 부위원장(714)356-9227, 정혜란 총무 cblove3000@gmail.com (951)444-0150

3월 5일 세계기도일 예배

세계 180여 개국에서 동시에 드려지는 세계기도일(World Day of Prayer) 예배가 오는 3월 5일(금) 전 세계적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건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마7:24-27)”라는 주제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공화국을 위해 기도한다. 바누아투공화국은 1980년 영국과 프랑스 공동식민지에서 독립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8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뤄졌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지진과 사이클론, 화산,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잦다. 또한 독립할 때까지 법적인 신분이나 권리, 여권, 토지 소유권 등이 없었던 무국적 상태의 나라였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세계 180여 나라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예배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지구 자전과 함께 24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문의: (562)569-9133

소망소사이어터 화상세미나

소망소사이어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하는 ‘치매 환자 돌봄을 위한 가족, 간병인 전략교육’이 3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된다. 3차 시리즈 교육의 마지막 교육인 이번 교육은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협의회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4차까지 화상으로 진행되며, 참석인원 제한은 없으나 참석을 원하면 3월 9일(화)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온라인 교육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동안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실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10일 동안 이어질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다뤄진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전문 교육과정 이수 증명 수료증이 수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등록은 <https://tinyurl.com/DV40hrs>에서, 관련 문의사항은 jwoo@kfamla.org 혹은 mlee@kfamla.org로 하면 된다.

▲문의: (213)235-4848 이미리 홍보담당

온라인 소그룹 사역훈련... “만나고 싶습니다”

UMC한인목회강화협회 시순절 웨비나

UMC(미연합감리교회)한인목회강화협회 시순절 웨비나가 2월 22일 오전 10시 열린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Zoom을 통해 열린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장학순 목사는 “모든 공동체는 소그룹으로 구성돼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모든 목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깨닫고 핵심이 되는 것이 소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교재 발간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장 목사는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교재는 소그룹사역 리더를 세우기 위한 내용과 훈련과정을 기획해서 출판했다”고 설명하며 책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본 교재 속에는 △매일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그룹 전 과정을 주님이 주신 임무라 확신하고 참여하며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소그룹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하고 실천하며 △심기는 교회와 UMC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서서로 경청함으로 세워진다는 소그룹 참여 연약 스테이먼트를 게재했다.

또한 본 교재의 특징은 한국/미국교회의 목회현장에 근거하고 웨슬리 신학에 기반해 통전적으로 구성했으며 다양한 소

(이성자 기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2월 월례회 및 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앞줄 오른쪽 첫번째 회장 송중록 목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2월 월례회 및 회장 취임식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이사장 정지윤 목사) 2월 월례회 및 회장 취임식을 2월 27일 오전 10시 로텍스호텔 로비에서 열고 송중록 목사 회장, 순문식 전도사 부회장, 조이스 정 사무처장이 취임했다.

송중록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1부 예배는 김창호 목사 기도, 김숙영 교수 특송, 최학량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최학량 목사는 ‘최고 법’(약 2:8)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품으면서 신

실한 믿음의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뒤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정지윤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2부 순서는 송중록 목사와 최학량 목사가 기도한 뒤 회장 및 부회장, 사무처장 취임식을 갖고 취임패를 전달했다.

한편 본 협회는 오는 3월 27일(토)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3월 문학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협회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사장 정지윤(213)249-0771, 회장 송중록(773)600-186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임직자들에게 임직패 및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겸손과 온유... 힘써 이 일을 감당하라”

세리토스선교교회 10명 임직 감사예배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임직식을 갖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10명의 일군을 세웠다.

방상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승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주하나 사모의 특송과 최병수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최병수 목사는 ‘내가 했다’(엡 4:1-3)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믿는 이들에게 익숙한 고백이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생각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구원받은 자들을 한곳으로 모아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해 교회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과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감당하게 하겠다. 오늘 세워진 임직자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힘써 이 일

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담임 방상용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임직식은 임직자와 교우들의 서약이 있은 후 안수위원들이 안수기도 하고 본 교회 새로운 일군 됨을 선포했다. 격려사는 공강국 목사가 맡았으며 장로로 임직 받은 정성석 장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10명의 임직자들은 설렘과 두려움,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통해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가 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화의 시점에 있는 임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체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이날 모든 행사는 주성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임직자는 △장로 장장석, 정래섭 △집사 강창식, 이용탁, 정동섭 김민철 △권사 김숙현, 김영심, 이성자, 최영인 등이다.

(이성자 기자)

‘모든 것 되신 주님’ 음원 출시

원하트워십 예배인도자 우성혜 간사 첫 디지털 싱글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의 두 번째 음원 프로젝트 ‘모든 것 되신 주님(The Lord is my everything)’이 출시됐다. ‘모든 것 되신 주님’은 원하트 워십에서 예배 인도를 맡고 있는 우성혜 간사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음원이다.



다양한 음악 경력과 예배 사역경력을 통해 깊이 있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사역자인 우성혜 간사는 “이 찬양을 통해 상황과 환경, 반복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아가기를 노래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우성혜 간사는 현재 휴스턴 새누리교회 찬양 사역자이며 한국고원대학교(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음악교육과, 웨퍼드대학교에서 M.M.(Master of Music) in singer-song writing major를 취득했으며 YWAM 예배팀 사역, 타임워커 2014 한국 투어 집회 메인 싱어팀으로 활동했다. 우성혜 간사의 ‘모든 것 되신 주님(The Lord is my everything)’은 애플뮤직(<https://music.apple.com/us/album/the-lord-is-my-everything-single/1553723972>), 그리고 유튜브(<https://youtu.be/9R4VTWpTKo>)에서 들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주최 북콘서트에서 수잔정 박사(사진 오른쪽)이 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한미 특수교육센터 수잔정 박사 북콘서트 열어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정)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북콘서트를 26일 온라인으로 열었다. 김지연 코디네이터 진행으로 열린 이날 북콘서트에서 수잔정 박사는 “미국에 와서 정신과 의사생활을 47년째 하고 있다”며 “여러 환자를 보았다. 특별히 한국인들을 볼 때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 부인과 문제, 도박문제가 있는 자들 중 주의산만에 관련된 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 중 자살하는 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어느 나라든지 본국의 자살률과 미국에서 자살률이 동일한 수준이다. 10만명 중 미국인이 12명 한인은 28명 이상이다. 자살로 가는 길이 ADHD(주의력산만증)와 관련돼있다”며 “아이들이 자존감 상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존경할 수 있고 어른이 돼서도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길 찾자는 마

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ADHD가 뇌의 생리적 현상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지가 얼마 안됐다”며 “1977년까지는 ADHD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주의산만증에 대해 병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데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잔정 박사는 “약은 개인마다 부작용을 잘 살펴서 사용해야 하며 어떤 약이든지 100%는 없다. 심장과 배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식후 복용하는 것이 좋고 유아들의 경우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콘서트 녹화 분은 한미특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kasecca.org>) 혹은 유튜브(<https://youtu.be/Ej86LGo7gzU>)에서 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부활절 연합예배 · 안전한 예배운동에 힘 모아

한국교회 연합 · 일치 본격화...전국 기연 리더들 한자리에

전국 주요 지역별 기독교연합회 지도자들이 부활절연합예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전한 예배운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국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7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연합회는 2015년 5월 각 지역 기독교 및 교회 연합단체의 협의기구로 설립돼 지역교회를 대변하는 기독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대표회의의엔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 전국의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백중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도 함께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에선 소 목사와 백 종무관이 인사를 전하고 부산기독교총

연합회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가 설교했다. 소 목사는 “연합회는 이제까지 종교소득 과세를 종교인 과세로 바꾸기 위해 힘쓰는 등 주요 기독교 정책에서 연합의 힘을 보여줬다”며 “한국총과 협력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한 일을 전략적으로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종무관은 “코로나19를 1년여간 겪으면서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교단과 전국교회가 날줄과 씨줄이 돼 더 견고한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꼬를 띄우는 사람”(행 10:1-2)을 주제로 설교한 김 목사는 “가이사라 지역에 고블료가 물꼬를 띄워 물길을 새로 만들고 영적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지역을 잘 섬기고 구제에 힘쓰는 일이 복음의 물줄기를 넓힐 수 있다”며 “17개 광역시·도 역사의 물줄기가 여기 모인 대표자들을 통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선 변창배 2021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 부활절연합예배에 대해 설명한 후 협력을 구했다. 대표자들은 부활절연합예배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총과 지속적·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MOU도 체결했다. 신평식 한국총 사무총장은 “MOU를 통해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동역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102년 전처럼...통합과 통일 부르짖어야”

한국총, 3·1운동 102주년 기념예배

한국교회총연합(한국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28일 ‘3·1운동 102주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 및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역병의 공포를 극복해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3·1운동 10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해 49인 이내의 주요 관계자만 참석했다.

이철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오늘, 나라와 민족의 큰 평화와 조화를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기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3·1운동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3·1운동에 한국교회가 큰 공헌을 했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며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뤄지도록 헌신하자”고 권면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미완의 3·1운동, 한국교회가 이룩자’란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돼 있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면서 “102년 전 3·1운동은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었다. 미완의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꽃길은 여는, 꽃피 심는 꽃밭 여행자가 돼야 한다”면서 “일제의 폭압 앞에서 만세운동을 펼친 선진들처럼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고,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화합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격려

이빌립 목사는 자신의 탈북 과정을 비롯해 신앙 간증을 하며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과정을 전했다. 이 목사는 “북한 선교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며 “무너지고 황폐해진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회는 2009년 10월 설립돼 중국에 흩어져 있는 1500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의 양육 및 구출, 북한 내 지하교회 지도자 육성 사업,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국내 정착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선교회는 침례교회의 지속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 협약식을 진행한다.

철저히 지키는 안전한 예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지자체와 협력 등 각 지역 연합회의 현황보고 순서도 마련됐다. 오영근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은 “강원도 강릉의 교회들은 예배당과 드라이브인 방식을 활용해 1500여명이 함께하는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길수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외사무총장은 “교회위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구별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정부·지자체와 교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문제를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며 “남북통일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함성으로 부르짖자”고 말했다.

한국총은 3·1운동 공헌 활동상 수상자로 일제강점기 의료선교에 힘쓴 윌리엄 린튼 선교사,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한 신석구 목사,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이필주 목사를 선정했다. 감사패는 각 수상자의 후손인 인요한 박사, 신원철씨, 노신국 권사가 받았다.

이어 한국총 대표회장 3명이 ‘3·1운동 102주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생명존중의 가치,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장된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로서 동아시아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해 과거사 청산에 나서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한국의 자주독립을 선포하게 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총신대 타교단 여성이사는 위배”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장, 사분위 결정 유감 표명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 법인 정이사 선임에 있어 여성 이사 3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합동총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분위 결정에 대해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며 “무엇보다 사분위가 타 교단 여성을 정이사로 선임한 행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 22일 총신대 이사 후보 30명 가운데 15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선임된 이사 중 3명은 교육부가 추천한 인사로 모두 타 교단 여성이다. 소 목사는 “사분위가 다른 교단 여성을 총신대 정이사로 선임한 것은 총회의 정체성을 비롯해 교단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도 위배 된다”고 말했다.

총신대 법인 정관 제1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20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한국교회 168개국에 2만2259명 파송

KWMA·KRIM ‘2020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 발표

한국교회는 2020년 12월 현재 168개국에 2만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1435명을 파송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26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선교협의체인 KWMA와 연구기관인 KRIM이 한국선교현황 단일화를 위해 2019년 업무협약을 한 뒤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홍현철 KRIM 원장은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 정확한 통계 수치를 따라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각각 통계 조사를 하던 KWMA와 KRIM이 2020년 선교현황부터 함께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됐고 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233개다.

지난해 12월 현재 한국 국적의 장기선교사는 2만2259명이었고 파송국가는 168개국이었다. 지난해 KWMA가 발표한 2019년 한국선교현황의 171개국, 2만8039명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줄었다. 반면 KRIM이 기존에 발표한 수치와 비교하면 올해도 선교사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KWMA는 그동안 KRIM에 비해 장기선교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왔다.

홍 원장은 “정확한 선교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장기선교사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KWMA에서 발표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치상 선교사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개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정립된 개념에 따르면 장기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2년 이상 계획을 세워 선교 사역하는 한국인이나 한국 국

적의 사람을 말한다.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나 후원 주체가 있어야 하며 선교사로서 모금하는 풀타임 사역자여야 한다. 선교단체 국내 본부의 장기·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비량선교사도 장기선교사로 인정했다.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간주했다. 개교회 파송 선교사와 해외 선교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이 아닌 협력 선교사 등은 제외했다.

추가된 조사 항목도 있다. 최근 교단과 선교단체가 타 국적의 선교사(국제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장기선교사와 별도로 이들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1년간 파송한 국제선교사는 1435명이었고 미국 국적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교단체의 재정도 조사했다. 응답한 138개 단체 중 58개(42.0%)는 지난해 10월 현재 재정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증가한 단체는 32개(23.2%)였다.

맞춤형 선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집계 방식도 세분화했다. ‘2020년 은퇴선교사 수’를 묻는 질문은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등 단계별 파송 선교사 수에 따라 별도 집계했다. 홍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100명 미만의 선교단체 중에는 은퇴 개념조차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며 “선교단체별 은퇴선교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려면 세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지난해 은퇴선교사는 170명이었다.

선교사 자녀(MK) 역시 교육연령에 따라 분류했다. 질문에 응답한 137개 단체의 MK는 1만6265명이었고 이들 중 취업연령이 32.4%로 가장 많았다.

한국 기독교 출판문화상 대상에 ‘한국기독교형성사’

기출협 정기총회 어린이부문 수상작 등 29종 시상

한국기독교출판협회(기출협·회장 황성연)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

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37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상은 ‘한국 기독교형성사’(새물결플러스)가 받았다.

기출협은 대상을 포함한 수상작 29종을 시상했다. 어린이 부문 국내분야에서는 ‘마음공공 성경동화 세트(신,구약)’(비전코람데오), 국외분야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100일 과학 큐티 2’(생명의말씀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청소년부문 국내분야 최우수상은 ‘세계 교회사 걸기’(두란노), 같은 부문 국외분야는 ‘하나님의 속도’(규장)가 각각 받았다.

신앙일반 국내외분야에선 ‘신학 레시피’(새물결플러스)와 ‘다시 출주기 시작할 때까지’(IVP)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회자료 국내외분야에서는 ‘깜놀 히브리어 1’(두란노)와 ‘전도서 주석’(기독교문화선교회), 신학 국내외분야에서는 ‘성령의 복음’(한국기독교사연구소)과 ‘1559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 세트’(생명의말씀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기출협은 올해로 37번째 매년 5개 분야별 양서를 선정해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해왔다. 이번 시상식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발행된 신간이 대상이다. 대상 도서의 기획 편집 제작 디자인 등이 평가 요소다. 올해는 1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1차, 협회의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종, 최우수상 10종, 우수상 18종을 선정했다.

‘관심과 실천’ 사이 간극 크다

승실대, 목회자 통일선교 사역실태 온라인 조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통일선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사역 참여와는 간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센터장 하중엽 교수)는 24일 서울 동작구 승실대 벤처관에서 ‘2020년 한국교회 통일선교 사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회는 한국기독교언론포럼 목회데이터연구소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지앤케리서치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7.4%는 ‘매우 필요하다’ 12.4%는 ‘약간 필요하다’고 답했다. 90% 가까이 응답자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 간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34.2%) ‘같은 민족이니까’(30.2%) ‘한국이 더욱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4.0%)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76.2%가 북한을 협력 및 지원 대상으로 바라봤다. 62.4%는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13.8%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위험과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은 각각 12.6%, 11.2%였다. 그러나 ‘항후 북한 정권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5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2%가 통일·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사역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통일·북한 선교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28.2%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53.8%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 18.0%는 ‘과거에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통일·북한선교 사역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7%가 ‘북한 선교에 대한 정보(방향성 및 방법 등) 부족’을 꼽았다. ‘통일·북한 선교 관심자 혹은 헌신자 부족’(19.9%) ‘교회 내 공감대 부족’(19.1%) ‘교회 내 이념 갈등’(16.3%) ‘재정 부족’(9.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의혁 승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교수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북한정권의 안정화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높게 나왔다”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교인들,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선교의 공감대를 넓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일선교 사역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승수 승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초빙교수는 “통일선교에 대한 목회자의 열망을 사역으로 이끌기 위해선 통일·북한선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센터는 다음 달부터 북한 동향과 사역 정보 등을 담은 통일선교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한국교회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후 10년내 북한교회 세우는 골든타임...”

통일소망선교회, 26일 ‘북한교회 개척학교 서밋’

북한에 교회를 개척할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북한교회 개척학교가 시작된다. 북한선교단체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립 목사)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호텔코리아나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북한교회 개척학교 서밋’을 진행했다.

북한교회 개척학교는 2018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논의 끝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양한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해 북한에 복음적이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

이철신 영락교회 원로목사는 ‘북한교회 세우기’(마16: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민족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며 “남북이 복음이 변화돼 사람이 변화되고 통일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연구하며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 성도가 연합해야 한다”며 “통일 후 10년 안에 북한교회를 세우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35)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영적 처방: 8. 성령님과 관계 발전시키기

성령님께서 우울증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연히 그러하시다. 성령님은 자각, 정결, 변화와 우리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영적 여정을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18절에 말씀하셨다.

(1)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2:38).

(2)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15:26).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16:14).

(3)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7-8).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

지 못했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력 같은 우리가 자신의 세속적 마음과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5)성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주신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삶의 방향 상실은 우울과 절망을 야기한다.

(6)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바울은 “기

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주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성령을 체험할 때 그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허함을 느낀다면, 성령님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 달라고 간구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령님께 방향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의 존재를 인지하라.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안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상담자이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파괴적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지혜에만 의지할 것이다.

기도: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주님의 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 주세요. 치유가 필요한 곳을 치유 받게 도와주세요. 제가 주 예수님을

침묵 연습

아직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할 때 성령 오시고 주님에 대해 가르쳐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령의 존재를 인지하도록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진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다른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생각과 우울증을 포함하여 영적 상함으로 인한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우실 것이다.

(4)성령님은 우리가 전에 보

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2:9-10). 우울함을 겪는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

못하였다면 매일 한 시간 동안 고요하게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일주일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라.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했다면, 한 주 더 시도하라. 그런 식으로 당신이 성령님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하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

사랑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불순한 생각과 행위에 노출된 제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제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3강 / 에덴, 하나님의 나라(창세기 2, 3장)

에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키라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므로(레 18:5/렘11:3-5) 의인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율법을 완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마5:17)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롬3:22, 5:1,21/엢1: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엢1:7/갈2:2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롬8:17/골3:4)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롬6:4-6/골2:20) 그리스도와 살아(롬6:8/고후 4:14/엢2:5)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긴 여정의 출발을 에덴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에덴을 통해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덴은 절대로 최종 목적지가 아닌 그 완전한 천국을 향한 출발지였습니다.

죄는 없으나 죄의 가능성이 있던 곳, 에덴

1.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은 분명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그곳은 죄의 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 만일 첫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까지도 그 에덴에 살고 있다면 그곳은 분명 불완전한 천국일 것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갈 천국은 완전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죄도,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단이 없고(계20:10) 사망이 없으며(계21:4) 밤이 없고(계21:25) 저주가 없는(계22:3) 생명나무가 있는 곳(계22:2)이

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1.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5:12/고전15:21).

2.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고전15:22).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

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롬5:15).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1. 떠날 부모가 없는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실, 아담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로 대변되는 교회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2:24).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엢5:31,32).

2. 예수님도 이 관계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6/참조. 막10:9)

3. 하나님에 의해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끊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천국 들어가는 방법 2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으리라”(롬8:35,38,39)

부끄러움이 없던 곳, 에덴

1.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에덴은 부끄러움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 2:25).

2.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 하나님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부끄러워 않고 사람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부끄러움이 아닌 관계의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3. 그러나 이제 하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제일 먼저 벗었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가렸습니. 예전에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부끄러움이라는 판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죄인에게 자기 판단, 자기 결정권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 먹지 말라하신 열매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사단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1.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를 짓도록 하기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라 Vs.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창2: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3:4)’고 단언 하였습니다. 두 길, 두 선택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2. 그러나 하와는 사단의 말은 이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늘, 매일 보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 임에도 사단의 말을 들은 이후에 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유혹을 따라 먹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을 심판보다 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3. 하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3:20-26).

3.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자리에 있던 이들은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왕이요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지녀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령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

이제 성경은 밝혀내실 것입니다.

1.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판단과 결정의 힘은 이제부터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해서 세워진 인간의 왕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 인간이 왕이 됨으로, 주인이 됨으로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드러낼 것입니다.

2.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무리를 떠나 길 잃은 양의 절대 절망의 상태이고 주인이 찾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질 드라마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이며 아들의 위치를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침내는 모든 것을 잃고 가증히 여김 받는 짐승 돼지를 치며 심지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의 절대 비참의 상태인 것입니다(눅15장).

3. 그래서 성경은 One Story 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죄인들의 결말을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배경으로 시가서는 애 통해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신 지시는 그 실체를 고발하며 신약을 바라며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을 정리하여 비유와 강제로 말씀하시고 사도 서신서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인의 삶, 그 이야기 계속 이어 집니다.

hfamilya@gmail.com

바로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는 것, 끊임없이 왕으로 살려는 우리는 부인되고(마16:24) 죽어지고(고전15:31)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범죄 전 그리고 범죄 후

1. 벗었으나 부끄러워 않던 관계,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던 관계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창3:11)’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는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2. 심지어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주셨으니 이것은 당신 잘못입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라면 가장 사랑하던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원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롬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보호(계12:14-17)찬394장

상징주의로 보여진 그리스도의 구속은 한 여인의 보호에 관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째, 그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14). 여기 나온 한 때, 두때, 반때는 모두 신약시대 곧 종말시대에 앞서 말한 42달 1260일과 같은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을 이들 자들은 특별한 보호처로 이끌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피조물이 돕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자신의 피

조물 도움으로 그 보호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구원을 방해하는 난관이라도 주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셋째, 용이 교회와 싸우려고 해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보호 속에도 용은 교회와 싸우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때 교회는 큰 보호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화 용이 세운 짐승(계13:1-5)찬539장

여기 나온 짐승은 용이 세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어떤 일을 감행합니까? 첫째, 짐승은 용이 세운 그 권위를 행사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1-2). 이처럼 삼위일체를 모방해 용, 짐승, 거짓선지자가 일체를 이뤄 흉내를 내지만 그것은 어두워지고 무질서하고 파괴돼 흉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용은 짐승을 조종하며 자기의 뜻을 펼칩니다(3-

4). 그 배후는 여전히 천하를 꾀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셋째, 짐승은 42달간 이적을 보이며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합니다(4-5). 여기 나온 42달의 제한된 기간은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종말에 이뤄질 구원은 적그리스도의 신성모독의 혼란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여러 혼란이 일어나도 주의 언약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수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계13:6-8)찬498장

여기에 다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6). 하나님을 비방한 그는 하늘에 사는 자들 곧,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한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과 싸워 일시적으로 이깁니다(7). 그 비방은 싸움으로 먼저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어겨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완전한 패

배를 위한 일시적 승리였습니다. 셋째, 불택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합니다(8).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아무리 교활하고 강력해보여도 불택자들은 범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가증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반역 행위를 당연히 여기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목 성도의 승리의 길(계13:9-10)찬342장

이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에 성도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첫째, 그 때는 환난이 극심함을 알고 그것을 극복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은 극한의 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의 인내로 이깁니다. 그 인내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안에 거하

기를 힘쓸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풍성한 승리가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 때에 풍성한 열매란 오직 그리스도만 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셋째, 그리고 성도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 믿음은 대상 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연합함으로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주안에 약속된 넉넉한 승리를 누립니다.

금 거짓 선지자의 목표(계13:11-14)찬375장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인 어린양은 용과 짐승과 결합된 거짓선지자입니다. 첫째, 용처럼 말하는 어린양(11-12)은 거짓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일어난 거짓선지자는 진리를 왜곡시키며 자기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에 능란한 것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 권위를 주장합니다(13).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결합돼 그의 하수인이 된 거짓선지자는 이상한 일을 보임으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셋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14). 마침내 그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합니다. 자기의 탐욕을 따르는 자는 결국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눅9:23).

토 거짓선지자의 활동상(계13:15-18)찬249장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합니까? 첫째, 위협함으로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15). 거짓 이적을 통해 무섭게 하여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이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둘째, 이마에 666인을 맞게 합니다(16-18). 그 인은 상징주의로서 땅에 속한 사람, 마귀의 사람임을 확정하는 표입니다. 종말에 참신자의

확증이 성령세례로 생활에 새겨지듯이 불택자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한 증거가 삶에 나타납니다. 셋째, 상권을 이용하여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17). 일상생활에 불편을 줌으로서 짐승을 따르게 만듭니다. 오늘 같이 어두운 때에 거짓 선지자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4)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체성 있는 자녀로 키우자!

다니엘은 그의 나이 15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3년간 느브갓네살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3년 동안의 훈련기간이 끝나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브갓네살왕 앞에 불려나가 시험을 받는데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단1:19-20).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너무 출중해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엇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똑똑하게 변모시켰을까? 바벨론의 교육제도? 훌륭한 교사들? 최고의 학교 커리큘럼?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 정답이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는 아이로 키우기를 권면한다. 성경 잠언 9:10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다니엘은 3년간 훈련기간이 끝난 후부터 바벨론의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어 80대 중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 일하고 은퇴할 때까지 근 65년간을 세 왕조에서 일하게 된다. 다니엘 1:21의 짧은 한 절에서 그의 일생의 삶이 담겨져 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으니라" 고레스왕 원년이라 함은 기원전 538년, 즉 페르시아 왕조가 등장하여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때이다. 그때까지 다니엘을 일했다는 것이다. 고레스왕은 기원전 583년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이에 따라 1차 유대민족의 귀환은 다음해인 537년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605년 15세에 포로로 잡혀 와서 3년 후인 602년부터 정부 고위직으로 임명된 후 538년까지 대략 65년

정부고위직에 65년간 재직한 다니엘의 학문과 학습 원천은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삶 지탱하게 하는 정체성 확립시키는 영성교육해야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단1:17).

그렇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달아 알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비록 그가 어쩔 수 없는 처지와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끌려와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다 해도 그의 진정한 학문과 학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왔다고 기록한다.

필자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기에 자녀교육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고민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무엇인지 혼동하시는 부모님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낀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자녀의 지혜가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이비리그의 대학교에 자녀를 보내려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학부모들을 볼 때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보다는 믿음이 있

간 그의 나이 80중반까지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러니는 오랜 기간 동안 세계는 바뀌고 정권은 바뀌어져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벨사살, 메데의 다리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그는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다고 그는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정할 짓을 하거나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필자는 그것이 다니엘의 뚜렷한 정체의식에서 찾고 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한다. 다니엘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단히 찾으려는 노력을 평생 동안 해왔다는 사실을 보고 감격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포로로 잡혀온 다음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굳게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단1:8)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존재 이유)이 되시기 때문이다. 만약 세상의 기준과 문화가 그를 지배하였더라면 그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 그리 고민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사랑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침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릭터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지 소식

니카라과 장로교회 연합세례식

매년 2월 마지막 주일은 니카라과장로교회 연합세례식을 거행합니다. 2월 28일 주일인 오늘 오전 10시 니카라과에서 가장 큰 Cocibolca 호수

목회자의 헌금기도, Jose Kim 선교사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드린 후 호수로 들어가서 13세부터 85세에 이르는 8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Enrique Zamora 목회자의 인도, Alberto Rodriguez 목회자의 기도, Denis Romero

항상 그러하듯이 세례를 베푸는 날은 늘 은혜롭고 감동이 가득한 날입니다. 일부 세례 받은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지어 함께 몽글하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보조기구를 이용해 겨우 걷는 형제도 가까이 물속에 들어와 세례 받는 모습도 감동입니다. 부부가 함께 세례 받는 가정도 함께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례식 후 거행된 성찬식은 Josiah Kim 선교사의 집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작년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상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어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 받은 믿음의 새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Hemos reunido por el Bautismo Unidos en el Lago de Cocibolca desde 13 años hasta 85 años son 82 nueva almas recién bautizado por la fe Que Dios bendice cada uno de ellos para que pertenezca al Señor en toda la su vida.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백신 접종 과도기...

(9면에서 계속) 교회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감염 위험수준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이 모임을 통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앱이 개발됐다.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자가 개발자로 참여한 앱 COVIDRisk.Link를 사용하면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모임 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의 전염성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확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측정 앱을 사용하면 성도들이 노출 위험 있는 사람들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

5.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격려하라

만약 우리 지역사회의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연장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 미국인의 거의

40%가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브로튼은 "사람들은 과거 터스키기 실험과 같은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더 빨리 교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받은 크리스천은 감염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빨리 도움을 주고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전염병이 극도로 정치화돼 일부 교회지도자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계명을 우리 행위의 주된 동기로 여길 것을 권면한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백신이 적어도 코로나19 전파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

그러나 백신의 이점에 대해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

브로튼은 "성도들과 계속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이 있는 전문가가 하는 말을 성도들은 훨씬 더 신뢰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교회지도자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정부와 전문가 및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많은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러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지도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정상화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은 최근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고 분열된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한탄은 "교회로서 우리는 이 전염병과 백신 접종문제로 인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 전진하기 위해 이 다섯 가지 과학적 제안이 교회가 다시 모여서 우리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과정에서 신앙과 과학을 모두 포용하는 빛의 등대가 돼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7. 변화될 미래의 가정상

가정의 변천은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교육의 평등화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촉진되면서 여성평등에서 여성상위시대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쳐 대가족제의 가정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 소가족제의 가정으로 급변하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동성결혼(Same Sex Marriage)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동조하여 합법화되어가면서 남편과 아내, 결혼 등의 용어 자체가 사라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공식문서에서 '남편(Husband)과 아내(Wife)'라는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그 대신 성(性) 중립적인 용어인 '배우자(Spouses)'와 '파트너(Partners)'라는 용어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급물살을 타면서 영국 정부의 공식문서에 사용 중인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가 폐기될 운명을 맞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정부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한국일보, 2012년

Husband, No Wife, No Dad, No Mom, and No Children, but only One Couple)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미래의 가정상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같은 동성결혼 바람에 편승하여 미국의 몰몬교의 성지인 유타주를 중심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결혼도 성행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하여 반려동물과의 결혼증명서(Certificate, 정부공인이 아닌)까지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단적 비정상적인 미래 가정상입니다.

이는 가정 파괴의 경지에 이르러 가는 말세기적인 사탄의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인데, 작은 교회인 가정이 파괴되면, 자연히 큰 가정인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전파와 영혼구원 사역이 중단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인간창조와 결혼제

동성, 일부다처, 반려동물 가정 생겨나 기독교계, 무대책 무방비상태 안타까워

3월 17일, A8 참고).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용어변경 계획은 동성애자 권리보호 단계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기존의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 커플(Couple)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LA 시의회도 2008년에 '결혼(Marriage)' 대신 '연합(Union)'이란 용어로 교체하지는 연방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 의하면, 결혼을 '동성 또는 이성 두 사람 사이에 성스럽고 살아있는 연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가 사라짐에 따라 연쇄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용어도 바뀌어야 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고, 동성애자 권리보호 단체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이혼 대상을 남편과 아내로 규정하고 있는 이혼법률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단지 동성의 한 커플만 있는(No

를 통한 가정의 창조와 가정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정면도전이고 가정과 교회의 존재와 설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과 교회의 존립을 뿌리 채 뒤흔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격분하고 반대해야 할 기독교계가 너무나 잠잠하고, 무대책 무방비상태로 소수의 동성애자들에게 당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형아적인 가정의 형태로 변질시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말세기적인 작전에 맞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파수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가정의 지킴이(Family Keeper), 가정의 파수꾼(Family Watchman), 가정의 선교사(Family Missionary)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가정선교의 목적인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

1983, KCLA, Korean Christian Literature Association in U.S.A

2021년 제35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

미주지역 한인 사회에 문학 활성화와 보다 넓은 문학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각자의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제정된 크리스찬 신인작품상의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모집부문

- 1. 시 : 5편 이상 (A4용지 출력)
2.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
3. 소설: 단편소설 - 200개 원고지 50매 내외
4. 장편소설: 1편/동화: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30매
5. 동시: 5편 이상/동요: 5편 이상
6. 생활수기: 1편 200자 원고지 50매

*6장르 모두(A4용지 출력)

작품 소재: 작품 소재는 자유이며 반드시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무방함. 표절 안됨, 발표된 작품 안됨, 순수한 새로운 작품 응모

응모 마감: 2021년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품 제출처: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특별 코로나19에 대하여 보내주세요.
1655 W. Marine Ave., Gardena CA 90247
연락처: Tel: (213)249-0771

심사위원발표: 문단의 중진들에게 위촉하고 당선자와 함께 발표함
2021년 6월30일, 미주판 신문에 공고하고 입상자에게는 시상 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지함

특기: 전 입상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에서는 입상자들이 문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
작품에는 반드시 이름(본명-한글,영문),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며,
결봉투에 '미주크리스찬문학협회'기재할것마감일 소인유효함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되, 응모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주 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코로나19 팬데믹 광풍...2020년 15% 증가

BBC, 코로나이후 일본 여성자살이 급격히 늘어난 까닭 분석 보도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자살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매월 말 자살 통계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 통계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2020년 일본에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자살률이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성의 자살은 소폭 줄어든 반면 여성의 자살이

15%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일본의 여성 자살률은 작년 10월에 비해 70%나 늘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Covid and suicide: Japan's rise a warning to the world?) BBC(루퍼트 황필드루이즈, 도쿄 특파원)가 이에 대해 보도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젊은 여성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힘든 경험이라며 황필드루이즈 특파원은 이번 경험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요코하마 흥등가에 위치한 상담센터, 즉 자살예방 자선단체인 '본드 프로젝트'가 운영하는 센터를 방문했다.

황필드루이즈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는 보보킵 헤어스타일의 19세 여성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15세 때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한다. 그의 오빠는 자신을 폭력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결국 가족을 했지만 그것이 고통과 외로움을 해결해주진 못했다.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듯 보였다.

“작년 이때쯤부터 병원을 여러 차례 오갔어요. 여러 차례 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젠 죽으려는 시도를 포기한 거 같습니다.”

본드 프로젝트의 개입으로 그녀는 자살 시도를 멈췄다. 단체에서는 그녀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줬고 집중적인 상담을 시작했다.

타치바나 준은 본드 프로젝트의 창시자다. 강인한 낙관주의로 무장한 40대 여성이다.

“여성이 심각한 문제와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타치바나는 말했다. “우린 여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한다고 말해줄 준비가 돼 있어요.”

타치바나는 코로나19가 이미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버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직원들이 최근 통화로 접했던 괴로운 사연들 중 일부를 설명했다.

“죽고 싶다”거나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그냥 사라지고 싶다’고 해요.”

코로나19는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던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갔었다. 위기 때마다 남성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다르다. 젊은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잡하다.

데믹의 특징은 관광이나 소매, 식품업계와 같이 여성 고용인구가 많은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근래 혼자 사는 싱글여성이 급증했다. 많은 여



2019년 10월 전년대비 70% 증가...남성은 소폭 감소 여성고용인구 많은 업계 큰 타격, 싱글여성 실직 많아

일본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간 일본은 자살률을 3분의 1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

우에다 미치코 교수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자살 전문가다. 그는 최근 몇 개월간 추세가 급격히 뒤집히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여성 자살 패턴은 매우 드뭅니다. 자살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런 증가 패턴은 생전 처음 봅니다. 코로나19 팬

데믹이 여전히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수반하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에다 교수는 또한 젊은 여성들이 불안정 고용 상태(‘프리캐리어’)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젠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건사해야 하는데 안정적인 정규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최근 8개월간 비정규직의 감소세는 정말 큼니다.”

이중에서도 작년 10월은 특히 두드러진다. 이 한 달 동안

에만 879명의 여성이 목숨을 끊었다. 이는 2019년 10월보다 70% 높은 숫자다.

연론 지면도 경음을 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작년 10월의 총 자살자 숫자(2199명)와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2087명)를 비교하기도 했다.

게다가 특히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작년 9월 27일 일본의 유명 여성 배우 타케우치 유코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

전직 언론인 시미즈 야스유키는 현재 일본의 자살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자살 사건의 숫자가 열흘 간 계속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9월 27일의 (타케우치 유코의) 자살사건 이후 열흘 동안 207명의 여성이 자살 사건을 추가로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케우치 유코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의 자살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암담해진다.

“전체 연령층에서 특히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

유명인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언론과 SNS 등에서 자살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취약한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진다.

스가누마 마이는 시미즈의 단체에서 일하는 연구자다. 그 자신이 자살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가 심대 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가누마는 현재 자살자의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사람들의 가족 친지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들을 애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코로나19는 자살자 가족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랑하는 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감정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종종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걸로 이어지곤 하고요.” 스가누마 마이는 말했다. “저 또한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제 자신을 탓하곤 했습니다.”

“요즘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가족들의 죄책감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애초에 죽음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도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의 세 번째 확산을 겪고 있다. 정부는 두 번째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며 이는 2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음식점과 호텔, 술집들이 문을 닫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우에다 교수는 계속 떨칠 수 없는 의문을 갖고 있다. 심각한 봉쇄조치가 내려진 적도 없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도 적은 편인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팬데믹이 훨씬 심각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니엘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라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원칙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외부의 압력

이나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그 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간다. 비록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졌고 생활패턴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의 내부, 생각과 사상, 마음가짐은 바꾸어져서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한 정체성은 다니엘을 훈련시킨다. 그러한 정체성이 타협하지 않는 삶을 지탱하게

한다. 정체성은 훈련을 통해 습관을 만들고 용기를 발산시킨다. 그것이 평생 그로 하여금 매일 하루 세 번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자세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진화론이 반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는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탄했던 적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대표로 졸업소감을 이야기할 때, 한 학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것이 진정한 정체성이요 아름다운 용기이다. 용기는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가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

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늘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니엘을 본 받으라 권면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이 있었기에 15살의 나이에 담대했고, 또 계속되는 시험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다. 다니엘은 참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자녀들의 본보기이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는 믿음뿐 아니라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단연 으뜸가는 학자요,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그의 부모의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우리는 자녀교육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영성교육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다.

hlee0414@gmail.com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짊어질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